

Sulwhasoo

Vol.56 May/June 2013





단오, 빛깔의 잔치가 열린다

예부터 월과 일이 모두 홀수이며 같은 숫자로 겹치는 날은 생기가 넘치는 길일(吉日)로 쳤다. 그중에서도 다섯 오(五)가 겹치는 초닷새, 단오야말로 연중 가장 양기가 센 날로 여겨져 한 해치 씨를 뿌린 뒤 풍년을 기원하는 신명나는 잔치를 벌였다.

반가와 민가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이 날만은 일손을 놓고 술과 음식, 노래와 춤으로 단오를 맞았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살아난 이들의 축제였으며, 다가올 여름을 대비하여 건강을 챙기던 날이었다. 금빛 유기그릇에 담겼을 음식과 금빛 악기에서 울렸을 소리가 다가올 가을의 황금벌판을 기원했을 축제. 삼한시대부터 시작된 선조들의 흥(興)이 오늘까지 울린다.

방짜 그릇은 경남 무형문화재 제4호 전수자 이점술의 동근 옥바리시기와 동근 연입식기로 오부자에서 만날 수 있다.

여인의 맵시에 윤기가 흐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색의 정수는 정갈함에 있지 않던가. 옛 여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경대 앞에서 볼과 머리 비녀를 쓰다듬으며 흐트러짐 없는 정갈함으로 맵시를 마무리했다. 허물며 단오가 되면 냇가에 흐드러지게 핀 창포를 따서 우린 물에 머리를 감는 의식까지 치러 익어가는 봄의 향기와 윤기까지 더했으니 옛 그림 속의 여인들이 지난 광채가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닐 것이다. 여인의 머리와 얼굴에 흐르는 윤기, 나들이 길에 만난 햇살보다 곱지 않은가.

호박노리개는 담연의 소장품이며, 밀화로 엮은 줄은 서울 무형문화재 제37호 엄익평 옥장의 작품으로 가원공방에서 만날 수 있으며,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여 피부의 '쇼' 윤기를 실려주는 미안피니셔. 곡선의 미감이 빼어난 백자 화병은 시드리빙.





색, 빛이 되어 윤기로 흐른다

An object should have dignity and liveliness in close relationship with life to have radiance. In this respect, there are two colors with radiance in the Korean tradition: off white and gold. Off white is the color of the books made of faded Korean paper that was used to cover the doors and windows. It is also the color of the family book Buddhist Scriptures, and of various paintings that display elegant radiance around us. While snow white symbolizes purity, which is rarely associated with radiance, off white is associated with radiance because it is the color of objects that we actually see. What about gold? Placed on the top center of the Five Colors, it feels intimidating because it is the color of royalty and nobility, but it has been used by many, from royalty to commoners. It is also the color of brassware, of the amber at the end of women's hair accessories, of the silk wrap around festival food, and even of rice fields when the rice plants ripen. As it has been closely related with the lives of our Korean ancestors, how can we say that gold represents royalty? When a color is radiant, it is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our lives.

어떤 물상(物象)에 윤기가 흐르자면 그것에 품위가 있으며,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생동감이 들어가야 윤기가 흐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전통 색상에서 윤기가 흐르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색을 꼽을 수 있다. 바로 지백색(紙白色)과 금색(金色)이다. 한지로 만든 책이 누르게 바랜 듯 보이게 하는 지백색은 문에 붙여져 창호지가 되고, 족보와 불경 등의 영인(影印)에 쓰여 복사지, 사군자나 화조도를 쳐 화선지가 되어 변신을 거듭하며 우리 곁에 머물러 고고한 윤기를 드러낸다. 눈부시게 하얀 백색이 순결 등을 이르는 관념의 색으로 여겨져 윤기를 느끼기 어려운 반면 지백색에서 윤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색으로의 백색이기 때문일 터. 그럼, 금색은 어떠한가. 오방색의 체계에서 으뜸을 뜻하며 중앙에 배치된 금색은 귀족과 왕족의 색이기에 감히 범접하기 어려울 듯하지만, 왕족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사용하며 아주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유기와, 아녀자의 비녀 끝에 달린 밀화, 잔치 음식을 싼 비단보자기, 하물며 벼가 익은 논에도 금빛이 흐르니 우리네 선조들 깊숙이 머물던 금색을 어찌 왕족의 신분만을 대변하는 색이라 하겠는가. 색에 윤기가 흐른다면 그것은 우리 삶과 맞닿았기 때문이다.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담연(02-546-6464), 오부자유기공방(031-996-7872), 가원공방(02-2278-0205), 시드리빙(02-541-8086)



화주(花酒)의 빛깔이 담은 것

꽃이 흔해지는 계절이 되면, 나들이 길에 오른 선비의 보통이에는 꽃으로 빚은 화주(花酒)가 들어 있게 마련이다. 제법 깊어진 나무 그늘에 앉아 화주가 담긴 잔을 돌리며 시 한 수를 주거나 받거나 하던 선비들의 풍류가 반들반들 윤기 나게 담은 유기 주전자에 그득 담겼다. 유기는 유일하게 우리 민족만이 다룰 수 있는 그릇으로 따스한 음식이 쉬 식지 않으며, 또 차가운 음식이 쉬 더워지지 않으며 식중독균 같은 유해균을 죽이고 영양소는 장기간 유지시켜 주는 생명의 그릇. 금빛 유기그릇에 나들이 음식을 담았던 비밀이 이제사 풀린다. 봄날의 풍류, 화주의 빛깔은 고운 여인의 얼굴빛처럼 발그레하기도 하고 잘 익은 쌀알처럼 황금빛이기도 하니 그 향에 취하고, 그 빛깔에 취했을 터이지.

표지의 밀화불수(蜜花佛手), 밀화 불로초 비녀와 둥근 밀화 조각은 모두 서울 무형문화재 제37호 엄익평 옥장의 작품으로

가원공방에서 만날 수 있으며, 고운 비단보와 나비 문양 뒤꽂이는 담연의 소장품.

뒤표지의 돛대이는 경남 무형문화재 제4호 전수자 이점술의 작품으로 오부지에서 만날 수 있다. 오른쪽 매화문양 뒤꽂이는 담연의 소장품이다.



미학자를 매료하다	한국미를 화폭에 담은 화가 오지호	08
집안 단장	식탁, 꽃피우다	10
몸단장	사대부의 품격	12
한국 문화 읽기	버선 Beoseon	14
피부 섬기기	피부 나이를 지우고 피어나라	16
옛 삶을 돌아보다	섭생의 주재자, 이 땅의 어머니들	20
격조 높은 삶	여왕들의 시대를 보다	26
여왕의 시대	우리 역사 속의 여왕들	28
어우러지다	여왕의 성정(性情)이 드러나다	30
살펴보다	여왕, 안목과 지혜를 갖추다	36
세밀하게 보다	시간의 이지, 조선시대의 마을을 품다	38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소프라노 김수연,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46
월드 헤리티지	색채를 조각하는 연금술사, 오르소니(Orsoni)	52
아트 클래스	팝업아트-종이의 펼침, 새로운 공간의 펼쳐짐	56
작가를 만나다	팝 아티스트 최정화	62
설화보감	푸르름이 짙어 미향(美香)으로 돌아오다	68
설화수의 세계	꽃에 취하다, 물길에 흐르다	74
국악기행	한류, 그 뿌리에서 다시 꽃이 피다	78
설록다원	자연과 사람을 향하다	84
미색보감	해시한 안색의 근본을 찾다	86
마음 단장		88
문화 즐기기		92
설화수 뉴스		93
Insides Sulwhasoo		94
독자 선물		96

Sulwhasoo

May/June 2013

자연과 상생하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한방성분을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이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상생(相生)하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과의 상생,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예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문화 교양지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것이 선사하는 단아함을 현대적인 미감과 접목한 전통과 현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Sulwhasoo's designs convey color aesthetics based on the Five Colors. In the cover of the Sulwhasoo Magazine 2013 May/June issue, off white and gold were applied to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in the customs of Dano, which was considered the liveliest day of the year. The color of radiance could be found in the brassware used to celebrate Dano, in the iris that added fragrance to women's hair, and in the hair accessories of Dano.

설화수의 디자인에는 오방색에 기초한 색채 미학이 들어 있다. 2013년 5/6월호 설화수 매거진의 표지에서는 미안피니셔의 디자인에 적용된 미색과 금색을 연중 가장 생기가 넘치는 날로 여겼던 단오(端午)의 풍속에서 찾았다. 단오를 기리는 잔치에 쓰이던 유기그릇과 여인의 머리를 향기롭게 하던 창포, 단오 비녀 등에 윤기 있는 색감이 담겨 있다.

●발행인·사경배 ●편집인·권영소 ●발행처 (주)인팩(인팩·서울시 중구 창계천로 100번지 시그니처빌딩 ●제작·Luxury MC 팀 ●문의·태윤희 02)709-5525
 ●편집, 디자인·Solution Co., Ltd.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한강빌딩 3층·Vi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김희성, 문비송 디자인·조윤형 마케팅·윤여찬 ●발행일·2013년 5월 1일(통권 제56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Et Photoengraving Ing Process ●인쇄·(주)태신인쇄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사경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미를 화폭에 담은 화가 오지호



한국의 미와 한국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주체성뿐만 아니라 글로벌리즘 시대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나라의 정신은 곧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는 무척 중요한 분야일 수밖에 없으며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한국의 미가 핵심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미를 회화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회화는 건축이나 공예 혹은 디자인 등에 비해 작가 정신이나 철학 등의 투영이 훨씬 더 깊고 직접적이며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미술 특히 회화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인지 화가가 아니라도 그림 그리는 것을 재미로 생각하며 즐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문적인 화가들 중에는 사상가나 인문학자 또는 사학자, 미술사학자 등에 버금가는 이들도 있다. 화가 오지호(吳之湖) 선생도 그중 한 사람이다.

오지호 선생은 확고한 예술철학과 더불어 한국 근현대미술이 낳은 독보적인 예술가다. 선생은 한글의 80% 이상이 뜻글자임을 들어 한자와 한글의 혼용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 유적과 유물에 대해서도 높은 식견을 지녔다. 특히 선생이 주장한 한국의 환경과 부합된 '한국적 인상파론'은 매우 주목할 만하며 독특한 한국미의 예찬이자 재발견이라 생각된다.

선생은 휘문고보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인 춘곡(春谷) 고희동(高義東) 선생에게 서양화를 배우면서부터 조선의 조형미가 담긴 그림을 그리고자 하였다. 이 시절 선생과 막역지간인 소설가 이무영에게 “조선의 물체라면 그 무엇이랴도 다 그려보고 싶다”고 토로하였다. 이후 선생은 화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가와바타미술학교에서 1년간 피나는 목탄 테생을 연마하고, 도쿄 미술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유행하던 현대미술인 인상파 그림을 배우면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인상파 회화를 갈망하게 되었는데, 이를 논리적·객관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였다. 귀국 후에는 본격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면서 '맑고 밝은 한국의 자연을 표현하는 데 고전적 사실주의나 자연주의, 추상주의는 어울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외광(外光)에 의해 영감을 자극, 표현하는 인상파의 기법이 제격'이라 생각하였다. 이는 선생이 휘문고보 시절부터 꿈꿔 오던, 태양 아래 반짝이는 우리 조선의 모든 것을 그리고 싶은 마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1935년도에 그린 <남향집>은, 이러한 선생의 뜻인 한국의 맑고 청정한 빛과 자연의 정광이 잘 표현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밝은 노랑과 선명한 파랑, 주황 등이 우리 자연의 느낌을 잘 살려 내며, 겨울날 따스한 태양이 내리쬐는 어느 시골집 대문 앞에서 늘어지게 단잠을 자는 흰둥이가 한국의 자연을 더욱 편안하게 담고 있다. 또 커다란 고목과 그 그림자는 우리의 맑은 자연 환경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어둡고 칙칙한 색상이 아닌 밝고 선명한 청색과 자홍(紫紅) 등으로 한국의 선명한 자연을 표현하기에 성공한 것이다.

단구에 흰머리를 가지런하게 빗고 광주 지산동 초가에서 한국의 자연이 오롯이 담긴 그림을 그리던 오지호 선생이 타계한 지 30년이 넘었다. 생전에 선생은 한자를 병기하여 자비로 손수 만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펴 보이며서 우리 한국 문화와 미술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곤 하였다. 선생은 실로 한국 문화와 미술이 낳은 독보적인 한국미의 화가라 하겠다. S

에디터 문비송 글 정준석미술평론가, 한국미술비평연구소 소장 사진 이종근



1 한국의 풍취를 우리만의 빛과 색채를 통해 그려낸 오지호의 인상파적인 시각이 잘 나타난 대표적 작품 <남향집>. 2 화백 오지호(1905~1982).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사실적인 자연주의 수법의 유희를 발표했다. 밝고 투명한 색채와 경쾌한 붓놀림의 인상주의 기법으로 '한국의 자연미 표현에 주력했다.'



식탁, 꽃피우다

입을 위한 식탁에서 눈을 즐겁게 하는 식탁으로의 진화.
나른하던 공간이 봄을 담은 화려한 플라워 패턴의 접시 하나에 기지개를 켜다.



2



3



4



5



6



7



10



11



12



13



14



15

1 파스텔톤의 장미꽃이 아름다운 주전자 세트는 아시안링크. 2 그릇 곁에는 시원한 블루 프린트가, 안에는 짐지리가 그려진 볼은 아시안링크. 3 요리하는 즐거움을 주는 모던한 도마는 스칸. 4 반전의 매력이 있는 에스프레소 잔은 쿤워드어뷰. 5 빈티지한 느낌의 찻잔은 팀블룸. 6 꽃이 수놓아져 있는 면 냅킨은 행복한바느질. 옥으로 만든 꽃모양 냅킨 홀더는 장식 작품으로 나락실. 7 선명한 색감의 꽃잎이 그려진 접시는 아시안링크.

히늘거리는 치마와 블라우스 차림의 여인들이 봄꽃이 만개한 거리를 수놓는다. 모던한 스타일에 밀려 촌스럽게 여겨지던 플라워 패턴은 이제 패션뿐만 아니라 집안 단장의 소품에서도 형식이나 사물에 구애받지 않고 더 과감한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작은 꽃이 앙증맞게 그려진 하얗고 뽀얀 백자 그릇부터, 생화인지 그림인지 분간이 어려울 만큼 섬세하게 표현된 접시 등 봄을 봄답게 느낄 수 있는 테이블 웨어가 부엌을 화사하게 해줄 것이다. 그릇장 안에 묵혀 두었던 자칫 지루하게 보일 수 있는 플라워 패턴의 클래식 접시를 요즘 감각에 맞춰 세팅하고 싶다면, 모던한 화병에 접시 속 패턴과 닮은 꽃을 담아내 함께 어우르는 것도 방법. 여기 5월을 담은 플라워 패턴 테이블 웨어를 소개한다. 플라워 패턴의 오븐 장갑이나 그 모양 자체로 한 송이 꽃 같은 찻잔 등 그 다양함과 화려함은 가히 계절의 여왕의 위용을 닮았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나라실(02-723-9426), 스칸(02-3444-0608), 아시안링크(031-943-9977), 오리엔탈우드(02-536-5280), 오프타임(02-925-5748), 이세용도예(02-739-7555), 임서령(010-2224-1788), 쿤워드어뷰(02-3443-4507), 팀블룸(02-518-8269), 행복한바느질(02-730-6928)



8



사대부의 품격

남성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옷의 가격, 디자인, 브랜드가 아니라 각각의 아이템들이 조화롭게 합을 이루는 것.



1 수작업으로 만든 안경은 윤주영 작품으로 스페이스두루, 2 마그리트의 작품 속 소품 같은 멋스러운 파이프 담배는 파이프스토리, 3 넥타이를 모자에 두른 유쾌한 발상의 페도라는 누브티스, 4 주얼리 장식이 돋보이는 만년필과 케이스는 몽블랑, 5 가죽으로 만든 케이스를 열고 닫게 만들어 휴대가 용이한 시계는 몽블랑, 6 천연 소가죽으로 만든 휴대용 구두주걱은 벨루티, 7 시계와 함께 차연 멋스러울 팔찌는 김진숙 작품으로 나락실.

남자와 쇼핑은 상극이라는 인식은 이제 고루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 됐다. 아니, 남자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점잖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옛 사대부 역시 몸단장에 있어 여성에 뒤지지 않았다. 여성에 비해 아기자기한 맛이 없을 뿐 넉넉하고도 시원한 절제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사대부 남성 몸단장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부채 하나에도 자신의 취미에 맞춰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선추를 매달던 그들이다.

현대에서도 남성복은 각각의 아이템마다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멋쟁이 남편, 멋부리기 좋아하는 큰아들에게 품격 있는 사대부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소품들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언제 어디서든 주목받는 남자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또한 우리만의 특권이니까.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가원공방(02-2278-0205), 나락실(02-723-9426), 누브티스(02-735-0346), 담연(02-546-6464), 몽블랑(02-3485-6620), 미크(02-704-0214), 벨루티(02-3446-1895), 상상마당(02-330-6221), 웨이빙월드(070-8798-5646), 스페이스두루(02-783-1354), 에스티듀폰(02-2106-3436), 파이프스토리(02-362-6328), 하임인터트레이드(02-585-1180)



8 갓은 담연, 화이트와 블랙 셔츠는 에스티듀폰, 나비넥타이는 상상마당, 흑단과 산호로 만든 갓끈과 갓 정상에 달았던 남자 장신구인 옥로는 옥장 엄익평의 작품으로 가원공방, 곰팡대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9 천연 소가죽으로 만든 테슬 장식 구두는 벨루티, 10 미끄러움을 방지할 뿐 아니라 멋스러운 슈트 차림에 완성을 더해줄 지팡이는 하임인터트레이드, 11 평범한 단추에 새로운 활력을, 매력적인 색감의 단추커버는 미크, 12 백옥으로 만든 지갑은 옥장 엄익평 작품으로 가원공방, 13 고급스러운 웨이빙 도구는 웨이빙월드, 14 강렬한 색감이 인상적인 가방은 벨루티.

버선 Beoseon

오이씨같이 작은 버선발로 사뿐히 걸어 나오다.



발은 인체 중에서 가장 천시되는 부분이다. 흠바닥과 직접 접촉되는 부분인지라 인체 가운데 제일 더러움을 탄다. 거기에 불완전하게 붙어 있는 다섯 개의 발가락까지 그 생김새도 말이 아니다. 발을 보호하고 또 가리기 위해서 서양과 동양에서 각각 양말과 버선을 만들어낸 이유는 같았다. 그러나 디자인적 접근은 조금 다르다.

서양의 양말(명칭 자체가 서양의 버선이라는 뜻이다)은 신었을 때 비로소 형태가 드러난다. 양말은 발 생김새를 그대로 나타낸다. 각선은 아름다우나 발 부분은 어떤 디자이너도 달리 그 형태를 변형시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서양 옷은 모두 입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양말만은 그렇지 않다. 발 생김새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놓은 것을 보면 마치 땀이 허물을 벗어놓은 것같이 징그럽게 보인다. 그래서일까, 중세의 서양 귀부인들은 발이 보이지 않도록 긴 치마폭 속에 숨기고 다녔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못나고 더러운 발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역전시켜 놓은 버선을 만들었다. 발을 감싸면서도 발의 생김새를 따르지 않고 철저히 독자적인 형태와 선을 만들어내는 버선은 신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어도 그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다. 발목과 앞부리의 완만한 두 곡선이 기와의 추녀 끝처럼 기막히게 마주쳐 살짝 위로 솟아오른 버선코의 섬세한 형태. 그것은 멋없이 불쑥 튀어나온 엄지발가락과는 상관없이 디자인된 추상적 선을 그려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의 버선은 발 모양의 재현이 아니라는 데 그 아름다움이 있다. 더불어 실제 발 크기보다 작게 만들고 숨을 통통하게 넣어 오이씨 같은 버선의 맵시를 내게 되었다.

넉넉하고 융통성 있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무엇이든 한 치의 여유 없이 꼭 들어맞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버선만은 예외였다. 버선은 치마나 바지처럼 헐렁하지 않고 꼭 조이게 함으로써 발 모양과 다르게 꾸미려 한 것이다. 그것은 인체의 약점을 역전시키는 한국적인 디자인 감각의 원형이다. 5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도음 주신 곳 당초문 김인자 한복(02-765-4333) 참고 문헌 <우리문화 박물관>이여령, 디자인하우스



The feet are the parts of the body that are looked down on the most. As they come in direct contact with the ground, they become filthy most often. Moreover, the five incompletely attached toes make them look ugly. These were the reasons that the East and the West created socks to protect and hide the feet. The design approach,

however, was slightly different. The Western socks barely take shape when they are worn. They show the shape of the feet. The line is beautiful, but no designer could change the shape of the foot part. While all other Western wardrobes have three-dimensional shapes, socks do not. They follow the shape of the feet. This is probably why the noble women from the medieval times hid their feet in long skirts. The Korean ancestors, however, created Korean socks called beoseon that transformed the ugly and filthy feet into the most beautiful things. Beoseon creates a completely unique shape and line, without following the shape of the feet, but embraces the feet. You can take it off, but it will not lose its shape. The two moderate curves on the ankle and from the toes meet each other like the angle rafters of the roofing tiles, and delicately point up at the tip. It draws an abstract line regardless of the big toe projecting from the foot. In other words, the beauty of the Korean beoseon is that it does not reproduce the shape of the feet. Moreover, it is made smaller than the actual feet and is filled with cotton to create a shape resembling a cucumber seed. The Korean people of old preferred roomy and flexible things and did not like anything that fits completely. Beoseon, however, was an exception. It was made tight to make it different from the shape of the feet, unlike the skirt or pants that were worn loosely. This is the original form of Korean design that reverses the weakness of the human body.

피부 나이를 지우고 피어나라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 그래서 ‘예뻐졌다’는 말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여자를 설레게 하는 말이다. 피부 나이의 흔적을 지우고, 젊게 피어나고 싶다면, 설화수 예소침과 퍼펙팅쿠션을 만나자.



서른을 넘긴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 이후 어느 정도 육아에 적응하고 나면 흐트러진 몸매를 추스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에 성공해 몰라보게 살아난 보디라인에 감탄하던 어느 날, 정작 얼굴을 보고 속상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잡티와, 입가에 드러나기 시작한 팔자 주름 때문이다. 이즈음이 ‘꽃처럼 화사했던 시절’로 피부 나이를 되돌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시기다. 평소 피부 관리에 꼼꼼히 신경을 썼다면 마흔으로 접어들어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고, 신으로 넘어가면 어느새 입가에 굽게 자리 잡은 주름과 얼룩져 보이는 피부톤, 떨어진 탄력감 때문에 거울을 멀리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모두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된다. 얼굴 나이를 기쁘게 하는 입가의 팔자를 보다 스마트하게 관리할 예소침과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간편하게 연출할 수 있는 설화수 퍼펙팅 쿠션에 옴은 답이 숨겨져 있다.

얼굴에 주름이 확연히 드러나는 부위는 눈가와 입가다. 입가에 생기는 둥그런 주름은 눈가 주름보다 얼굴 나이를 좌우하는 데 치명적인데, 정식 명칭은 콧날개 옆에서 입가로 내려가는 비스듬한 주름, 즉 ‘비구순 주름’이지만, 여덟 팔자(八) 같아 보인다고 하여 흔히 팔자 주름이라 부른다. 눈가 주름은 눈웃음의 결과라 생각하며 덤덤히 받아들이는 사람조차도 입가에 드리운 팔자 주름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눈가 주름은 대부분 눈매를 처지게 하는데 그치지만, 팔자 주름은 턱선까지 무너지게 만들어 얼굴의 인상 자체를 단숨에 바꿔놓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볼독 주름’이라는 애칭이 달렸겠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입은 눈만큼이나 활동량이 많은 부위다. 말하고 먹고 웃으며 쉬없이 움직이는 입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하지방이 증가하고, 피부를 지탱해주는 탄력인자가 감소하며 볼살이 처져 입가에 팔자가 그려지고 만다. 부작용과 고통을 참으면서 시술을 받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최근엔 팔자 주름의 골을 따라 여러 개의 한방침을 자침하여 뺨 부위의 탄력이 증가하는 한방 시술을 많이 받기도 한다.

Most women over the age of 30 go on a diet after childbirth to get back into shape. You may be amazed by your restored body line with the diet, but your face would drag you down again. This is because of its blemishes and nasolabial area. At this point, you start feeling that you want to turn back the hands of time to ‘the time of your radiance.’ If you have been devoted to skincare, you would experience the same concern after the age of 40. In entering your 50s, you would begin to avoid mirrors because of lines around your lips, your uneven skin tone and the loss of your skin’s resilience. All these symptoms make you look ‘older.’ The answer is ‘Microdeep Intensive’ for even smarter care for your nasolabial area and ‘Sulwhasoo Evenfair Perfecting Cushion’ for easy generation of supple and resilient skin.

Wrinkles become prominent around your eyes and lips. The parentheses around your lips make you look even older. Their official name is nasolabial area. Those who tolerate eye wrinkles because they are caused by smiles and laughter cannot easily tolerate nasolabial area. Most eye wrinkles only make your eyes sag, but nasolabial area destroy your chin line and change the appearance of your entire face. This is why they are called ‘bulldog lines.’

Unfortunately, your lips move as actively as your eyes. Your mouth constantly moves while you talk, eat and laugh, and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gravity. Because subcutaneous fat increases as you age and the elastic factors that support your skin decrease, your cheeks sag and produce the parentheses around your lips. This is why you endure the side effects and pain of various procedures. These days, Korean acupuncture is used along nasolabial area to increase the resilience of the cheeks.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 주름 중 하나인 콧날개 옆부터 입가를 내려가는 팔(八)자를 케어하는 예소침크림&패치. 특히 예소침크림은 피부 주름과 굽게 때인 팔자를 집중 관리해주고, 예소침패치에 내장된 흡윤밴드는 탄력까지 케어한다. 은 수공예 진주 뒤꽂이는 나스첸카.



예소침은 예소침크림과 예소침패치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노화완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효소처리 홍삼 사포닌과 연자육 성분을 설화수의 한방과학으로 풀어낸 예소침크림은 매일 아침과 저녁 팔자 주름을 포함한 볼 주위의 붉은 주름 부위에 펴 발라 굳어 있는 주름 피부를 풀어준다. 3일에 한 번 밤에 사용하는 예소침패치는 히알루론산 제재가 탑재되어 있는 밴드다. 팔자 모양을 따라 딱 들어맞게 재단된 패치는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오돌도돌한 형태의 돌기가 달려 있다. 패치를 붙이고 손으로 톡톡 두드리면 어느새 스르르 녹아 피부에 스며들어 팔자부위를 케어한다. 밤새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부착되는 습윤밴드 타입이라 피부를 이완시키고 팽팽하게 당겨주는 테이핑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한 박스에 총 25ml의 크림과 10장의 패치가 담겨져 있다. 한 달간 팔자를 케어할 수 있는 구성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사용하면 보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입가에 자리한 팔자부위를 케어했다면 이제 퍼펙트한 탄력커버 피부 표현으로 젊은 얼굴을 완성해봄이 어떨까. 완벽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 비비크림이나 프라이머, 컨실러, 파운데이션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번거로웠다면 설화수 퍼펙팅쿠션을 만나보자. 설화수 퍼펙팅쿠션에서 주목할 점은 자외선 차단, 미백 뿐 아니라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라는 것. 높은 커버력으로 기미와 잡티뿐만 아니라 표정주름까지 세밀하게 커버하는 데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수채화공법(색소를 오일이 아닌 물에 분산시키는 공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균일하게 피부에 발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색상 커버력과 영양감이 느껴지는 촉촉함을 경험할 수 있다.

오월의 모란처럼 젊고 아름답게 보이는 방법, 예소침과 설화수 퍼펙팅쿠션에서 찾아보자.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나스텐카(02-597-4844)

설화수 퍼펙팅 쿠션은 자외선 차단과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으로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하루 종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메이크업 제품이다. 놀라운 커버력과 촉촉한 영양감을 느낄 수 있다. 5월 중순 출시 예정 은 수공예 백옥 뒤꽂이는 나스텐카.

It consists of 'Microdeep Intensive Filling Patch & Microdeep Intensive Cream.' Enzyme-treated red ginseng saponin and Nelumbo nucifera for anti-aging are used with Sulwhasoo's Korean herbal science to produce 'Microdeep Intensive Cream,' which is formulated for application every morning and evening on nasolabial area to loosen them. 'Microdeep Intensive Filling Patch,' which is used at night once every 3 days, is a band of hyaluronic acid. The patches are tailorfit to the nasolabial area that you can feel with your hands. Apply the patch and pat it with your hands so it can melt into your skin to take care of your nasolabial area. It is a wet band that stays on your skin overnight to relieve and tighten your skin. Each box contains 25ml of cream and 10 patches, good for one month of care. You will see dramatic results if you use this product each quarter.

If you have taken care of your lips, how about completing your youthful look with perfectly resilient coverage? If BB cream, primer, concealer and foundation are too hard for you to use for a flawlessly natural look, try Sulwhasoo Evenfair Perfecting Cushion. What you should focus on is that Sulwhasoo Evenfair Perfecting Cushion is product as a sunscreen, whitener and functional wrinkle corrector. The watercolor method (of dispersing pigments into water instead of oil) is effective for flawless coverage of dark spots, blemishes and expression lines and allows natural and even application for long-lasting coverage and nourishment for suppleness. The way to appear as young and beautiful as a peony in May is with Microdeep Intensive and Sulwhasoo Evenfair Perfecting Cushion.

섭생의 주재자, 이 땅의 어머니들

“맛에 대한 민족의 유전자는 가장 강력한 우성으로 늦게까지 잔존한다”는 칼럼니스트 이규태의 지적은 적확하다. 체화된 이 오랜 관습을 담은 것이 음식이고, 음식은 전적으로 여성의 손에 의해 선택되고 차려진 것이 우리의 과거였다. 그렇다면 음식은 옛 여성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해 왔을까? 전통 병과의 맥을 잇고 있는 조선왕조 궁중음식 중요무형문화재 정길자 씨와 함께 그 길을 되짚어 본다.



1



2

1 나이테가 고스란히 드러난 나무와 창밖 가화동 기와지붕이 시간의 흔적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 입에 들어갈 우리 떡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오래다. 2 궁중 병과의 맥을 잇고 있는 정길자 원장. 그는 한국음식을 “여성들의 지혜와 정성이 빚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1 정갈자 원장이 아름다운 접시에 떡을 담아내고 있다. 음식은 맛도 좋아야 하고, 영양도 좋아야 하지만 정갈한 상처림으로 시각적 즐거움도 주어야 한다. 2, 3 떡에 문양을 넣어 찍어내는 떡살. 떡손이라고 불리던 떡살에는 연속형 무늬와 단독형 무늬를 찍을 수 있는 정방형 떡살도 있다. 그런가 하면 다식은 길상문자나 정교한 무늬를 음각한 다식판에 찍어냈고, 약과를 만들 때 쓰던 약과틀은 다식판과 구조는 같지만 크기가 약간 크다는 특징이 있다. 4 초록빛이 싱그러운 썩떡 하나하나를 떡살로 찍어 내고 있는 손길은 정성 그 자체이다.

가족을 식구(食口)라고도 한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이란 뜻이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먹을 식(食) 자를 파자하면, “사람이(에게) 좋은 것을 취한다”이다. 좋은 재료로 조리한 음식이 사람에게 유익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밥상머리에서 나는 대화가 유익하다는 얘기도 될 것이다. 해서 누군가와 친분을 쌓기 위해 우리는 “밥 한번 먹자”는 인사말을 입에 달고 산다. 식사는 친교를 위한 방편이기도 하거니와 가정에서는 자녀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다. 유교의 미덕을 추구하던 조선의 예절은 밥상에서 시작되었다.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까지 기다리며 공경을 배웠고, 상을 물린 뒤 설거지가 밀린 머슴이나 식모의 밥이 마르지 말라고 남은 밥에 물을 붓는 배려를 배운 것도 밥상에서였다. 옷을 짓는 일이 여성의 연중행사에 해당하는 노동이었다면, 상을 차리는 일은 거르지 않고 돌아오는 조식의 고된 노동이었다. 이 얘기를 들은 정갈자(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씨가 손사래를 친다. “조리는 노동이란 태도로 음식을 대하면 안 돼요. 음식은 제 손을 구정

물에 담가가며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배려의 행위니까요. 한국음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성이란 한 단어로 집약되죠. 음식에 정성이란 간이 배어야 비로소 한국음식이고,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하긴 우리 민족에게 정성과 기다림이 없었다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효식품을 개발할 수 있었겠는가. 길을 걷다보면, 한 집 건너 식당이다. 한국의 퇴직자들은 왜 창업 대상으로 식당을 선호하는 것일까? 초원을 떠돌던 유목민과 달리 ‘농자천하지대본’의 깃발을 들고 한반도에 정착해 살아온 우리 민족의 밥상은 간소함과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유교의 영향으로 돌상에서부터 제사상에 이르기까지, 온갖 잔치와 기념은 상차림으로 시작되고 끝났다. 이런 익숙함이 그런 식당문화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이쯤에서 조선의 밥상을 한번 들여다보자. 백성의 주식은 무엇이었을까? 쌀밥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다. 주식이 밥인 건 맞지만 밥의 주재료는 쌀과 함께 보리나 조 아니면 기장이 주류를 이뤘다. 귀한 쌀은 서민의 밥이 아닌 화폐의 역할을 대신했다. 조선 관리들의 급여가 쌀과 콩, 천으로 지급되었던 기록만 봐도 그렇다. 벽초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에도 민중의 주식은 조와 기장으로 묘사돼 있다. “어릴 때 학교를 파하고 대문을 들어서며 어머니를 찾으려면, 할머니가 ‘어미는 쌀 팔러 갔다’고 하셨어요. 쌀을 사는 행위를 부러 판다고 한 건, 뒷박으로 쌀 사는 걸 부끄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이죠. 할머니께서 쌀을 풀 때 뒤주 바닥 긁는 소릴 유독 싫어하셨던 것도 그런 심리였을 겁니다.” 쌀 이야기가 나오자 정갈자 씨가 가슴에 새겨둘 한마디를 던진다. 대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농사를 지어 거둔 농부의 쌀을 겸허한 마음으로 조리할 때 진정한 음식이 된다는 얘기다. 매식의 기회가 많아지고 밥상머리 예절도 사라진 지 오래된 지금이지만, 최소한 이 얘기만큼은 담아두어야 하지 않을까. 맛보다 허기를 채우기 급급했던 민중의 밥상이 그러했다면, 반가의 밥상은 어땠을까? 지금도 몇몇 종가의 상차림을 보면, 정갈함과 정성스러움에 눈부터 배가 부르다. 또 왕실의 음식은 어땠을까? 조선왕조의 궁중음식은 천운으로, 조선조 마지막 주방 상궁 한희순에 의해 故 황혜성에게 다시 정갈자와 한복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특히 궁중병과연구원을 통해 전통 병과의 맥을 잇고 있는 정갈자 씨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예상 밖의 답이 돌아왔다. “어릴 적, 어머니가 준치로 맑은 국을 끓여 주시며 가시가 나뭇잎 모



3



4



양이니 조심하라곤 하셨죠. 궁에서는 갈치처럼 치자가 들어간 생선은 상에 올리지 않았어요. 다만 준치는 예외였죠. 한 번은 황혜성 선생님이 준치를 찌서 체에 받쳐 가시를 거른 다음 국을 해서 내시는 겁니다. 과연 궁중음식이란 이런 거구나란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헌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낸 결과, 궁중음식이란 게 서울 사대부 반가의 음식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론 궁중음식은 제철에 진상된 재료를 숙수나 주방 상궁 같은 전문 조리사의 손으로 정성껏 조리한다는 차이가 있긴 하죠.”

궁에서 연회가 끝나면 고임상에 올렸던 음식을 '가자'라 부르는 들것에 실어 왕족이나 신하들의 집으로 하사했단다. 그런 교류의 과정에서 조리법이나 식단이 공유되었다는 것이 정길자 씨의 설명이다. 그뿐이 아니다. 정조가 능행을 할 때 배춧국과 명태국을 먹었다는 기록만 봐도 반가의 음식과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궁중병과연구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역시 “궁중음식은 듣도 보도 못한 특별한 것”이란 고정관념을 갖고 온단다.

자, 그럼 떡을 예로 들어보자. 조선 후기 각종 요리 관련서를 보면 무려 250여 종류의 떡이 등장한다. 그 각각의 이름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떡을 만드는 방식도 참으로 창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찌고, 치고, 빚고, 지지는 이런 화려한 떡문화는 관혼상제의 풍습이만 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한과 역시 유밀과류, 유과류, 다식류 등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이쯤 되면 서양의 케이크나 과자보다 윗길이라 해도 좋지 않을까.

고구려 안악 3호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떡시루만 봐도, 우리가 즐겨 먹는 떡의 역사가 이 정도라면, 떡 한 조각을 먹을 때 조상의 지혜와 은덕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쌀이 모자라 분식을 장려하던 시절이 있었죠. 한 번은 토마토케첩에 버무린 깎뚜기를 아이들에게 먹이자고 하니, 돌아가신 황혜성 선생님이 어떻게 발효미가 없는 김치를 만들 수 있느냐며 크게 노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음식은 100년이 지나야 비로소 전통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전통음식을 대할 때 그런 시간의 곱씹음까지 생각하며 음미하는 것이 예의일 겁니다.”

그렇다. 음식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음식은 생명을 건 선조들의 탐구심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시금치와 근대는 날것으로 먹으면 탈이 난다. 비록 영양소 파괴가 있더라도 데친 다음 섭취해야



1 정길자 원장의 투박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떡. 그 모양만큼은 한국 여인들의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 2 한옥의 정독대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정길자 원장. 그는 “청소년들이 우리 음식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지만, 은근한 색감 대신 강하고 짙은 것만 추구하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3, 4 아이들에게 방부제 범벅의 과자를 사줄 것인가, 아니면 저토록 맛있게 보이는 전통 한과를 먹일 것인가는 순전히 부모의 선택이다.

한다. 그런 과학적 상식이 없던 시절, 우리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는 지혜와 정성으로 나물 한 가지도 가려 먹었다. 찢은 것은 찢고, 데칠 것은 데쳤고, 말릴 것은 말려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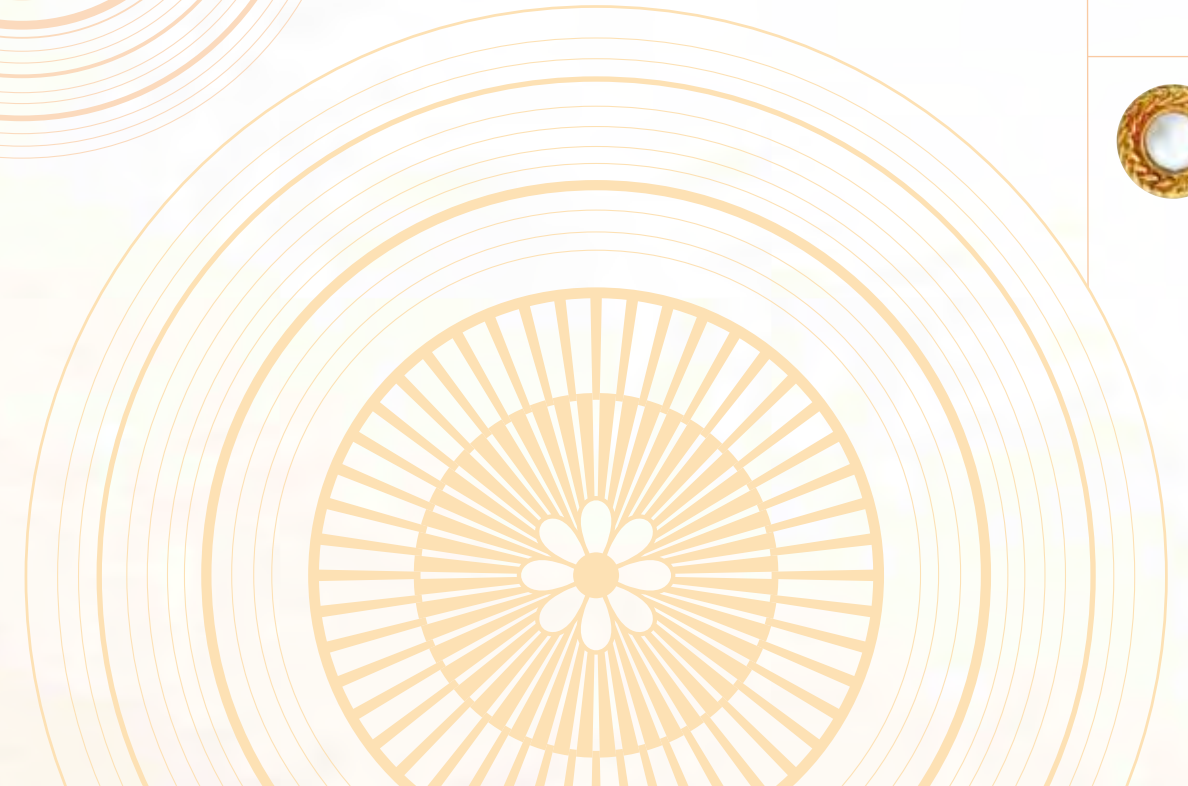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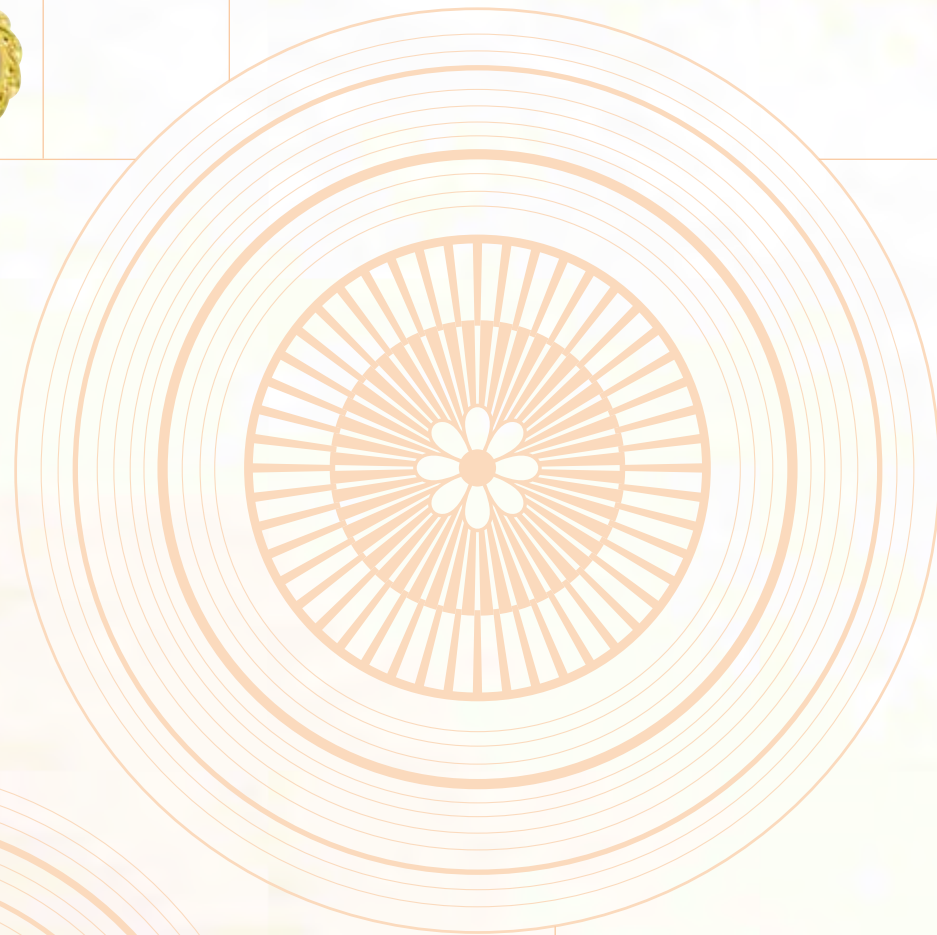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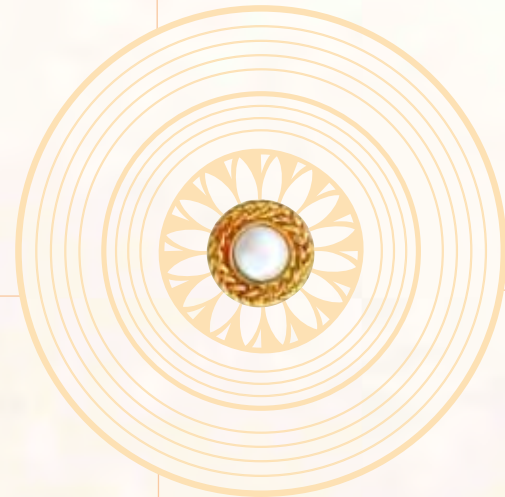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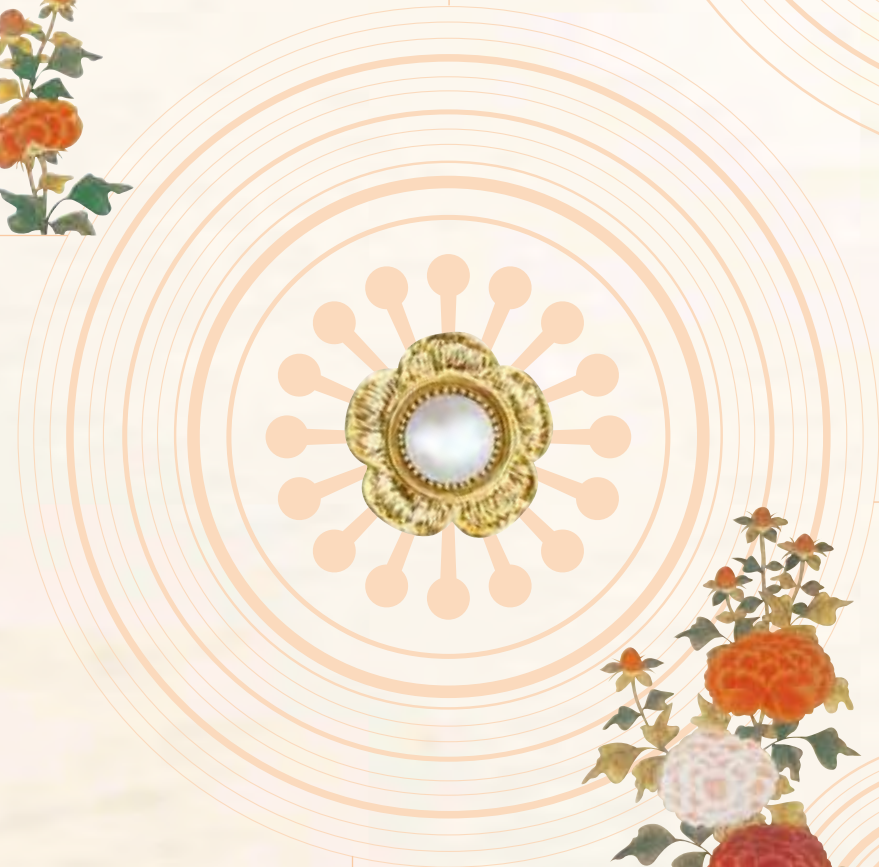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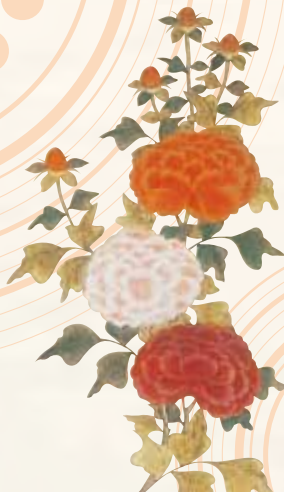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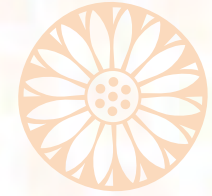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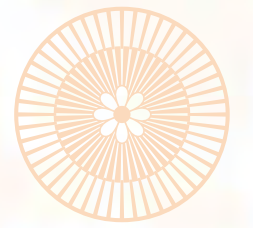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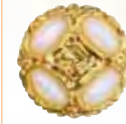
흔히 조리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한다. 조리에 앞서 메뉴를 선택해야 하고, 재료를 선택해야 하며, 조리의 방식을 고르고, 어떤 그릇에 담을지도 생각해야 한다. 물론 누구와 나눠 먹을 것인가도 선택의 대상이다. 그러니 조식으로 상을 차려야 했던 이 땅의 여인들은 경험과 지혜로 무수한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온 셈이다.

“강연을 할 때, 한국에서 누가 음식의 대가인가를 질문하곤 합니다. 제 스승의 함자가 호명되길 기대하면서요. 그때마다 저를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답이 나와요. 작은 소리로 수강생들이 귀엣말로 ‘우리 엄만 데’라고 하죠. 맞아요.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게 정답이죠.”

사람에게 섭생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섭생의 주재자는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이다.S

글 최태원 사진 이종근

신라에 세 명의 여왕이 있었다.
남성 군주들이 충돌하던 역사
속에서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섬세한 용인술로
새로운 치세를 이루었던
선덕과 진덕 그리고 진성이
있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과 이집트 등지에도
각기 다른 전략으로 나라를
진두지휘했던 여성 군주가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의 시대, 다시 여왕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세기를 훑어 자신만의
스타일로 두각을 나타내던
여왕들의 이야기.





여왕들의 시대를 보다



우리 역사 속의 여왕들

남성 군주들의 통치 스타일이 각기 다르듯, 여성 군주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도 저마다 달랐다. 그러나 '여성성'으로 일컬어지는 특징들, 이를테면 섬세함과 부드러움과 소통능력 등이 국정 의 밑바탕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우리 역사 속 여왕들은 남성 군주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역사의 격변기에 나라를 이끌던 여왕들의 특징을 몇 개의 일화들을 통해 간추려 본다.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포용하다: 선덕여왕

〈삼국유사〉 '기이편(紀異篇)'에는 선덕여왕에 관한 흥미로운 일화들이 등장한다. 그중 여왕으로서의 처세와 관련하여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옥문지(玉門池)' 이야기다. 옥문지라는 연못에서 한겨울에 두꺼비들이 울어대자 여왕이 "서쪽에서 여근곡(女根谷)을 찾으면 필시 적병이 있을 터이니 섬멸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장수들이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런 이름의 골짜기가 있었고, 백제 군사들이 숨어 있다가 전멸당했다고 한다. 훗날 신하들이 당시 일에 대해 묻자 여왕은 이렇게 대답한다.

"성난 두꺼비는 병사의 형상이니 적병이 침입했다는 뜻이다. 옥문이란 여인의 음부인데 여자는 음(陰)이고 음은 흰빛이며 흰빛은 서쪽이니, 당연히 서쪽에 숨어 있으리라 확신한 것이다. 원래 남근이 여근 속에

들어가면 이내 힘을 잃고 죽는 법이니, 적들이 전멸 하리란 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이 일화를 보며 어떤 이는 여왕의 지혜를 칭송할 것이다. 또 어떤 이는 표현에 스스로움이 없던 신라인들의 성(性)의식에 눈길을 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의미는 다른 데 있다. '남근이 여근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건 단순한 성적 표현이 아니라 여왕의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이다(임종욱, 〈여왕의 시대〉). 권력의 세계가 결코 남자들만의 것은 아니며, 부드러움은 강함을 포용할 뿐 아니라 제압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그 속에 있다.

자상함은 정책에서도 확인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선덕여왕은 즉위 하자마자 곧바로 온 나라의 흠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등을 구제했다고 한다. 백성들과의 접촉도 이전 왕들에 비해 훨씬 잦았는데, 여왕을 사



모하다가 끝내 불귀신이 되었다는 지귀(志鬼) 이야기(〈삼국유사〉 '의해편(義解篇)')은 궁 밖 출입을 즐겼던 여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도성 젊은이의 짝사랑의 대상이 될 정도로 친근했지만 늘 온유하기만 했던 건 아니다. 김유신과 김춘추라는 당대의 야심가들을 누구보다도 충직한 부하로 만들 만큼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군주이기도 했다. 게다가 당나라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만큼 당찬 구석도 있었다.

"연호를 인평으로 바꾸었다. 분황사가 완성되었다."(〈삼국사기〉 권5, 선덕왕 3년 정월)

분황사는 선덕여왕이 즉위한 직후에 건립을 시작한 사찰인데, 흥미로운 건 그곳에서 나온 유물이다. 1915년에 일본인들이 분황사 모전석탑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사리함엔 금비늘, 은비늘, 옥, 장신구 등이 들어 있었다. 그 물건들이 과연 여왕의 것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개인성은 충분하다. 분황사(芬皇寺)라는 이름 자체가 '향기로운 황제의 사찰'이라는 뜻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섬세한 용인술과 여왕의 비애: 진덕여왕과 진성여왕

선덕여왕에 뒤이어 즉위한 진덕여왕은 비담의 반란에서 비롯된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는 데 역점을 두었다. 알천을 상대등에 임명한 게 그 출발점이다. 정계의 최고 실력자이자 백전노장인 알천은 문무를 겸비한 데다 행정능력도 탁월하여 늘 국왕 후보로 꼽혔던 인물이다.

선왕 시대의 쌍두마차들 또한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김유신에게 군사 분야를 장악하도록 배려했고, 김춘추에게 외교 분야를 전담케 했다. 이러한 '황금분할'은 내치와 외교에 신속한 안정을 불려줌으로써

1 경주 황남동 삼국시대 신라 무덤인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황남대총 북문 금관(국보 제91호)〉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문에서 발견된 왕관보다 더 귀한 재질과 화려한 장식의 왕관으로 여왕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신라에서 여성의 권위가 높았으며, 여왕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으로 보는 학자도 많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2 신라시대 〈인면문원외당(얼굴무늬수막새)〉, 경주 영묘사 터에서 출토된 기와에 사용된 수막새로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유일한 유물. '신라의 미소'라는 애칭으로 불리는데, 신라 여인의 미소, 선덕여왕의 미소로 빗대어 소개되기도 한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이후 통일의 기틀을 닦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비록 선덕여왕의 명성에 가려 크게 주목받진 못했지만, 진덕여왕의 섬세한 용인술과 '거버넌스(governance)'가 없었다면 신라의 삼국통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운이 한창 뻗어 나가던 시기에 재임했던 두 여왕과 달리, 진성여왕은 비운의 여왕이었다. 신라가 찬란했던 황금기를 뒤로하고 몰락하던 시기에 왕위에 오른 까닭이다. 왕실의 권위가 나날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탓에, 진성여왕은 흔히 '문란하고 무능한 여왕'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진성여왕이 마냥 손을 놓고 침실에 사내들만 불러들인 건 아니다. 위홍과 대구화상을 시켜 향가집 〈삼대목〉을 편찬했던 건 들끓는 호족세력들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위장술로 볼 수도 있다. 혹은 노래의 주술적 힘을 빌려 난국을 타개하려는 일종의 궁여지책이었을 수도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어쨌든 현실을 바꿔보려 했던 여왕의 고뇌가 깃든 것만은 분명하다.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6개월 만에 쓸쓸히 세상을 떠난 진성여왕은 셋 중 가장 불운한 마지막 여왕으로 우리 역사에 흐릿하게 남아 있다.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여왕의 성정(性情)이 드러나다

한 시대를 통치했던 여왕이 늘 애중하던 물건 혹은 여왕과 얽힌 소소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물건은 무엇일까. 여왕의 물건을 통해 성정(性情)을 살펴본다.



영국 엘리자베스1세의 진주

16세기 영국의 영민한 여왕 엘리자베스1세,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 여왕'으로서의 신비감을 강조하며 치세를 이뤘는데, 그녀가 집착한 대상은 보석이었다. 그녀는 처녀성의 상징을 '진주'에 두었고, 대관식에서도 진주 달린 모자를 쓰고 등장했다. 좌우명 '셈페르 에어템(semper eadem_항상 같다)'를 보석에 새겨 수집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신라 선덕의 모란씨와 그림

당나라 태종이 모란 그림과 씨앗 석 되를 보내주었는데, 선덕이 "꽃에 향기가 없을 것"이라 예지했다. 뜰에 씨앗을 뿌려 꽃을 피웠는데 과히 그 꽃에서는 향기가 없었다. 선덕이 기미를 알아차린 것은 그림 속에 활짝 핀 꽃만 있고 '나비와 벌'이 없었기 때문. '선덕의 타고난 지혜'에 빗대어 소개되는 일화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모란도는 오색채담 강은명 작가의 <모란도>, 김익영 작가의 정사각 백자첩은 우일요 금박으로 장식한 진주낭은 서울 무형문화재 제3호 김은영 작가의 작품이다.



합스부르크가마리아테레지아의 검은 상복

완벽한 18세기적 통치자로 불리며,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잘 선택한 통치로 지금까지도 모범적인 군주상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마리아 테레지아. 유럽 최대의 왕조인 합스부르크가를 훌륭하게 이끈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16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그를 기리며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16년간 검은 상복을 벗지 않았다. 검은 상복을 입고 짐무를 보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초상화가 여럿 남겨져 있다.

유아한 검은색의 머리 장식은 한은경 작품으로 코코드메르

신라진덕의 오언태평송(五言太平頌)

마지막 성골 출신의 신라왕이 진덕이다. 진덕 재위 4년, 당나라에서 백제를 대파한 사실을 알게 된 진덕은 직접 비단을 짜서 당나라를 칭송하는 구절로 가득 찬 송시(誦詩) 오언태평송을 오색실로 수를 놓아 당 고종에게 보낸다. 이를 두고 후대의 평가는 분분하나, 당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진덕의 야심찬 외교 시가 아니었을까.

자수 실패와 비늘방석, 끝무는 모두 국제자수원



청나라 서태후의 흰 목이버섯

중국 청나라 최고의 권력자였던 서태후. 몰락해가는 시대를 이끌었지만, 그녀의 권력과 위엄은 막강했다. 매끼 은식기에 올려진 120여 가지의 반찬으로 차린 상을 받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오래도록 이 권력을 누리고 싶어 했을 그녀가 믿었던 젊음의 샘물은 '흰 목이버섯을 달인 물'이다. 매일 아침 이 물을 마시면 젊음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었다고 전해진다.

포세린 주전자는 오리엔탈무드, 흰 목이버섯은 버섯나라.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의 공작석

고대부터 문명이 발달하고 여권이 강했던 이집트에서 화장술이 발달했음은 당연한 이치다. 문학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할 만큼 특출난 삶을 살았던 클레오파트라는 뛰어난 화술과 수완과 재기를 지녔으나 외모는 특출나지 않았다. 그런 그녀를 세기의 인물로 남긴 공은 푸른 공작석을 갈아서 그린 검푸른 아이라인이 선사한 비범함이 아니었을까.

직사각형의 베카라 보석함은 선학구디 제품.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음 주신 곳 우일요(02-763-2562), 오색채담(02-566-5375), 코코드메르(070-8666-0145), 국제자수원(02-733-0937), 오리엔탈무드(02-536-5280), 버섯나라(043-742-0024), 선학구디(02-3443-3708)

여왕, 안목과 지혜를 갖추다

여왕들의 시대가 다른 시기에 비해 평화로웠으리라는 건 오해다. 권력 다툼과 전쟁은 군주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어느 시기에도 똑같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위대한 여왕이란 때로는 여성 특유의 직관으로, 때로는 남성 못지않은 전략적 사고로 시대의 난관들을 헤쳐 간 인물들이다. 1492년 1월, 7백여 년간 나뉘어 있던 세 개의 왕국(카스티야, 아라곤, 그라나다)이 하나로 합쳐지며 이베리아 반도에 통일 스페인이 탄생한다. 내로라하는 남성 군주들도 이루지 못했던 대업을 이룬 주인공은 카스티야의 여왕 이사벨 1세. 그 출발점이자 원동력이 되었던 건 다름 아닌 '사람 보는 눈'이었다.

엔리케 국왕은 이사벨 공주를 주변 강대국의 왕족과 정략적으로 맺어주려 했다. 그러나 이사벨은 가톨릭 전도사들을 유럽 전역에 파견하여 각국 왕자들의 정보를 파악한 다음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자를 배우자로 선택한다. 결국 둘은 결혼했고, 각자 왕이 되어 두 나라를 합병시켰고, 함께 그라나다로 출정하여 스페인 통일을 이루어낸다.

그녀는 훗날 모두에게 외면받던, 심지어 남편 페르난도까지도 사기꾼이라고 욕하던 콜럼버스를 주저 없이 선택하고 후원했다. 그 결과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눈에 사람을 꿰뚫어보는 직관적 안목! 그게 바로 이사벨을 유럽사와 세계사를 뒤흔든 위대한 여왕으로 만든 비결이다.

선덕여왕은 권력의 버팀목을 만들어내는 데 남다른 안목을 보였다. 김춘추의 아이를 뱀 문화를 오라비인 김유신이 죽이려 하자 이를 만류하며 오히려 두 남녀의 결합을 채근했던 것. 서로를 견제하며 암투를 벌일 수도 있었을 당대의 영웅들을 혼맥으로 이어주고 나아가 최고의 심복으로 삼은 여왕의 용의주도함이 없었다면, 신라는 결코 통일왕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대영제국의 상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남편 앨버트 공이 살아 있을 땐 그에게, 그를 여인 뒤엔 수상과 정치인들에게 대부분의 정치적 권한을 양도한 채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최후의 결정권을 행사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왕의 권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고, 영국은 정치적 안정 속에서 최고의 번영기를 누릴 수 있었다.

다 내어준 듯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전하고 오히려 강화시켰던 전략적 지혜! 그녀가 '영국 그 자체'로까지 불리며 여왕 중의 여왕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된 데는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남녀를 불문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꼭 배워야 할 것도 바로 그런 지혜일 테고.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韓秀

雪花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스킨케어-미안피니셔가 완성하다 설화수 미안피니셔

최초로 부스팅 에센스를 개발하여 큰 사랑을 받아온 설화수가 또 한 번 세상에 없던 새로운 스킨케어, 미안피니셔를 탄생시켰습니다. 미안피니셔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여 성분과 성분의 조화를 이루고 스킨케어의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신개념 피니셔입니다. 녹차와 인삼의 조화로 태어난 녹삼효™ 가 하루 종일 피부의 생윤기를 살려줍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스킨케어의 마무리, 미안피니셔가 완성합니다.

Sulwhasoo



시간의 이치, 조선시대의 마을을 품다

조선시대에 이뤄진 집성촌에 들어서면 500년의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선조의 삶이 단숨에
쏟아내려 간다. 한 가문이 터를 일구고 자손을 번창시키며 하나의 마을을 이룬 세월의 두께 안에서
이내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만다. 조선시대 마을의 전형을 오롯이 담고 있는
경주시 양동마을과 성주군 한개마을을 둘러 세월이 주는 이치를 살핀다.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한구(다큐멘터리 사진가)

설창산의 품에 마을을 짓는다

양동마을을 한눈에 쓸어 담고 나니, 한 편의 서사시답다. 설창산에서 뻗어 나온 네 줄기 사이로 들어앉은 마을은 조선시대 마을의 전형인 물(勿)자 형을 이루고 있다. 경주 손(孫) 씨와 여강 이(李) 씨의 집성촌인 이곳은 자연에 바탕을 둔 샤머니즘, 불교와 유교, 성리학에 풍수지리까지 두루 겸비하고 있다. 양반가옥 아래 자리한 민가들이 500년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

At a glance, Yangdong Village looks like a piece of epic poetry. Nestled on the four branches of the Seolchang Mountains, it forms the typical shape of villages in the Joseon Dynasty. Being the town of the Gyeongju Son Clan and the Yeogang Yi Clan, it developed Shamanism, Buddhism, Confucianism, Neo-confucianism and Feng Sui. The homes of commoners, located below the mansions of the nobility, reveal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for over 500 years.





새마을의 한살이 이그리다

양동마을 고가(古家)의 지붕에 이끼가 새로 피었다. 담장 밑 붉은 꽃은 꽃잎을 떨궈내고 초록을 매달았다. 마을을 이루던 500여 년 전부터, 아니면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그 이전부터 누군가 삶을 이어가며 매만졌을 지붕이고 풀들이건만, 생명이 주는 황홀은 새로 보수한 지붕에도 이끼를 얹히고, 마을을 둘러싼 동백과 목련은 피고 또 철철 넘치게 진다.

New moss has covered the roofs of the old homes in Yangdong Village. The red flowers under the walls have shed their petals, which hang from the green leaves. The roofs and the greens must have been in the village since it was first established 500 years ago, or even before then, but the fantasy of life has grown moss on the newly repaired roofs as the overflowing camellia and magnolia flowers across the village bloom and wither.





외갓집 지붕에
손녀의 웃음이
터졌네

물과 나무, 흙이 만든 양동마을의 초가집. 그 지붕 위에 분홍빛 꽃이 터졌다. 양동마을은 혼례를 하면 처가로 들어와 마을을 이루던 오랜 풍습을 갖고 있어 '외손마을'이라고도 불린다. 덩치가 작은 나무이건만 초가지붕보다 더 높이 오른 것은 낮은 지붕에서도 행복하였던 외갓집 식구들의 모습이다. 지붕까지 핀 꽃은 갓 태어난 손녀의 웃음처럼 터져 온 마을에 향기를 내린다.

On top of the straw houses in Yangdong Village that are built with water, lumber and mud burst pink flowers. Yangdong Village is called "Oison Village" because it has a long tradition of grooms moving into the village with their bride's families after their marriage. Even the short trees have grown taller than the straw roofs because the families lived in happiness even with low-roofed houses. The flowers that cover the roofs burst with the laughter of a new-born granddaughter to diffuse their fragrance throughout the village.



소프라노 김수연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인간의 몸이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는 말은, 오롯이 옳다. 높은 음역대에서 춤추듯 기교를 표현하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아리아를 듣는 순간은 더욱 그렇다. 행복한 음악적 사치다.

결이 고운 목소리를 가진 김수연은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다. 아직 대중에게 낯선 ‘콜로라투라(coloratura)’는 오페라에 등장하는 소프라노 가운데 기교적으로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선율을 말한다. 조수미가 부른 ‘밤의 여왕’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관객의 귀를 한껏 사로잡는 콜로라투라는, 화려한 악보 위에서 성악가가 자유자재로 춤을 추는 듯한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음과 기교에 관객은 자연스럽게 탄성을 쏟아낸다.

“제가 원하는 콜로라투라의 세계는 보다 인간적인 교감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정교한 기교를 완벽하게 구사하면서도 인간적인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싶거든요. 작곡가가 표현한 기쁨과 슬픔을 저만의 해석으로 관객들에게 깊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강한 울부짖음보다 한 방울의 눈물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콜로라투라라고 하면 정확하고 섬세한 기교를 먼저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것 너머의 감정에 있다. 완벽한 기교 위에 자리한 감성의 전달이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곡도 오페라 ‘헨릿’의 오펠리아 아리아다. 워낙 고음이 자주 나오는 데다 주인공의 감정이 극에서 극을 오가기에 성악가이자 연기가 되어야 비로소 소화가 가능한 곡이다. 연기를 하면서 고음의 기교를 실현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에, 그녀에게 오펠리아는 언제나 도전인 동시에 충만감을 주는 캐릭터다. 그녀는 나이가 들수록 성숙한 해석으로 오페라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성악가가 되고 싶다.

“사람이 늙으면 성대도 같이 늙어요. (웃음) 높은 음역대의 음악적 기교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탱탱해야 합니다.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전성기를 서른 살부터 마흔 살 사이로 보는 이유랍니다. 하지만 외국의 성악가들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풍성한 음악적 감성으로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비록 일부분의 기교가 구현되지 않더라도 삶의 깊이와 음악에 대한 해석이 오페라 극 자체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서죠.”

돌아보면 성악가의 꿈은, 그녀에게 다소 늦은 시기에 찾아왔다. 선화예술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줄곧 성악을 전공했지만 마음은 플루트에 두고 있었다(별도의 성악 레슨을 받지 않았는데도 상위권을 유지했을 만큼 재능이 있었다). 성악과를 유지한 것은 조수미, 신영옥 등 대가를 발굴하기도 했던 유병무 은사님의 조언에서 비롯되었다. 재능이 있으니까 플루트를 하더라도 성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라는 말씀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조수미 선배님의 무대를 보고 음악적 충격에 빠졌죠.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완벽한 기교와 아름다운 목소리에 반하고 말았답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노래를 진심으로 잘 부르고 싶다는 꿈이 생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폭 빠져버렸죠.”

꿈은 한순간에 찾아와 그녀를 뒤흔들었다. 학교 선배이자 세계적인 성악가의 공연은 그녀의 음악적 욕구를 강하게 자극했다. 재능은 있었지만 자신을 오롯이 쏟아붓지는 않았던 나날들에 마침표를 찍은 순간이다.

재능과 꿈이 합쳐지자 길은 기다렸다는 듯 순탄하게 이어졌다. 프란츠 도너 교수의 발탁으로 유학 길에 올라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성악을, 동 대학원에서 가곡과 오라토리오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특히 종교곡 독창자로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냈는데 오페라 ‘슐레 테어 프라우엔(schule der frauen)’의 아그네스 역 등을 맡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분이 있다면 유병무 은사님과 조수미 선배님이시죠. 특히 어렸을 때는 조수미 선배님의 음악을 편식하듯 심취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프로그램 ‘오페라스타’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면서 조수미 선배님과 재회할 수 있었죠. 마지막 스페셜 무대를 선배님이 꾸며주셨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





수연 씨'라면서 반갑게 알아봐주셨습니다. 선배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웃음)

지금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악가로 조수미, 나탈리 드세, 에디타 그루베로바를 꼽는다. 그들은 모두 그녀에게 구체적인 음악세계를 길도록 만든 정신적 멘토에 가깝다. 세계적인 거장의 각 장점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싶을 정도로, 그들을 사모했다. 여기에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더해준 것은 다름 아닌 지금의 가족이다.

유학으로 시작된 외국생활은 음악가의 삶이 대부분 그렇듯 연습과 공연으로 채워진, 다소 단조로운 일상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홀로 학교와 공연장을 오가며 체감했던 타지에서의 외로움이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졸업하면서 가정을 꾸렸다. 그사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여러 무대에 서기는 했지만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음악에 쏟아붓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수박에 없었다. 성악가로서 따진다면 덧셈보다 뺄셈이 많은 시기, 그러나 여자로서는 삶의 전환기이기도 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음악생활에 전념했다면 과연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었을까, 종종 생각해요. 유명하고 화려한 생활은 가능했는지 몰라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행복을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비록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어쩌면 그것조차 제 삶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준 디딤돌이 된 듯해요.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자 비로소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며, 음악을 놓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으니까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시야가 더욱 넓어지는 법이다. 그녀에게 결혼과 출산은 음악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갖게 해준 매듭이 됐다. 음악적 갈증은 음악에의 확신과 사랑의 동의어였다. 과거 음악은 으레 내 것인 자연스러운 공기 같은 존재였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랬던 음악이 아이들의 탄생으로 더욱 절실한 '무엇'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그러니 지금의 환경에, 오로지 감사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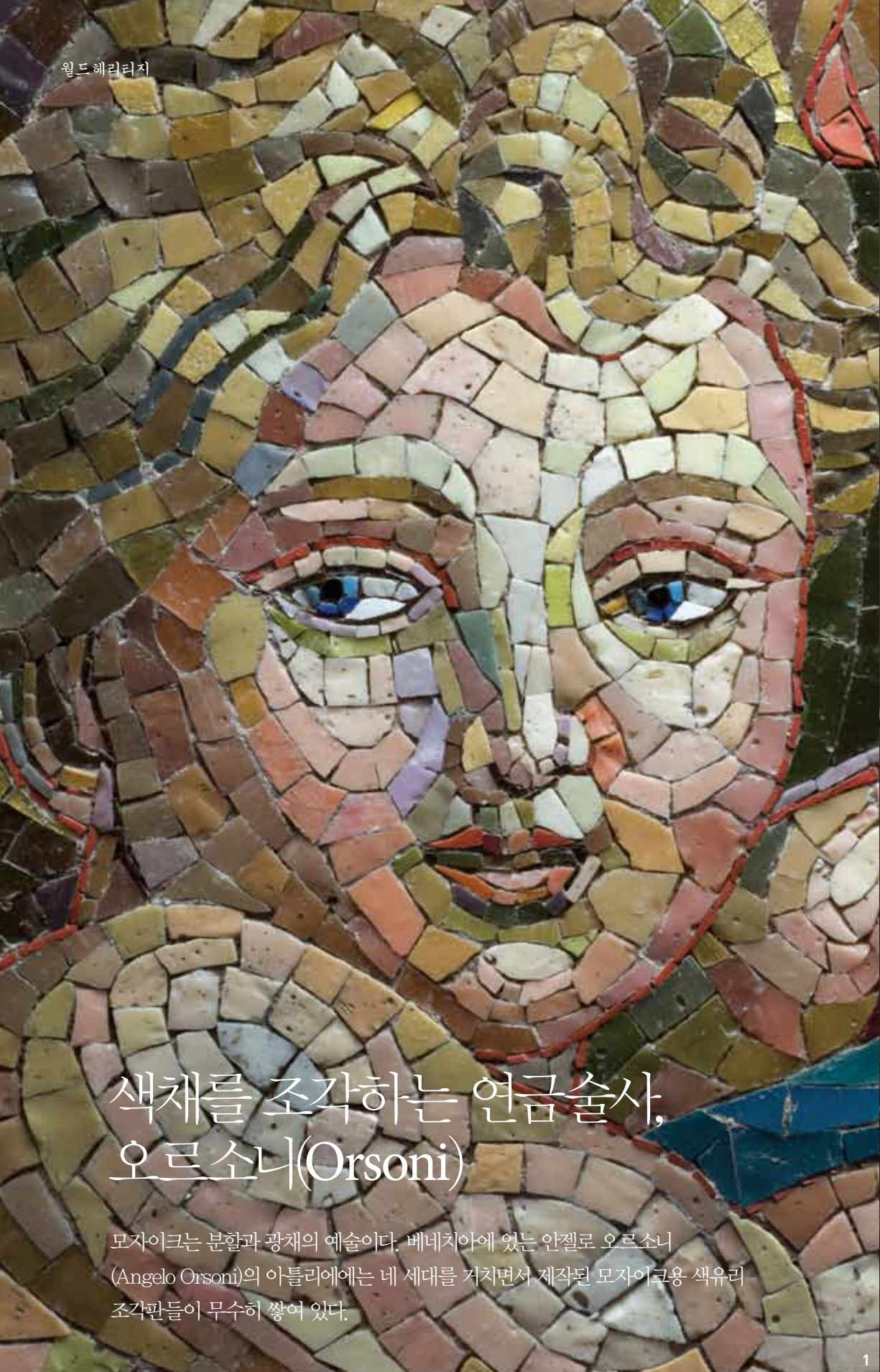
나이가 들면서 무대에서 느끼는 행복의 색깔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어려운 기교를 완벽하게 표현했을 때 최고의 만족감을 느꼈다. 지금은 관객과의 교감 그 자체에 집중한다. 콜로라투라의 아리아는 그 특성상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 '저게 뭘까?'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순간, 그들의 관심과 감동이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그녀에게 전해진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고 서로의 호흡이 멈출 때, 더없이 황홀하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무대는 엄숙하고 거대한 공연장에서의 무대가 아니라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콘서트였어요. 아이들 특성상 관객석은 산만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막상 노래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단순하게 음악을 흡수하면서 즐기더군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황홀한 교감이었죠.”

지금도 종종 빈의 오페라하우스와 학교 길이 익숙한 풍경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유학하던 그곳으로 훌쩍 떠나서 노래에 심취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진다. 다행히도 지금의 그녀에겐 인생을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자신의 빛깔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빈에서의 생활도 인연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임을 믿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음표를 묻는 질문에 의외로 '쉽표'라고 답했다. 인생의 급급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고 싶다면, 그녀의 음악과 삶은, 화려한 음표가 아니라 잠깐의 쉽표에서 완성되는 듯했다. S

에디터 박지현(프리랜서) 사진 박재형 헤어 지니(포레스타 02-3444-2252) 메이크업 세연(포레스타 02-3444-2252)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이상봉(02-553-3380), 헬레나앤크리스티(02-512-4329), 블랙뮤즈(02-508-6033)



색채를 조각하는 연금술사, 오르소니(Orsoni)

모자이크는 분할과 광채의 예술이다. 베네치아에 있는 안젤로 오르소니(Angelo Orsoni)의 아틀리에에는 네 세대를 거치면서 제작된 모자이크용 색유리 조각판들이 무수히 쌓여 있다.

1 2



3

베네치아의 카나레지오(Cannaregio)에 있는 안젤로 오르소니(Angelo Orsoni) 아틀리에. 1888년부터 비밀업수가 적용되어 온 유럽 최후의 모자이크용 색유리 조각판 수공업 제조사의 하나인 안젤로 오르소니의 은밀한 작업장엔 유리와 금을 다양한 색채로 변형시키는 신비스러운 연금술이 리듬에 맞추어 펼쳐진다. 카나레지오 운하와 접한 거리에서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불그스름한 가마들이, 전면에는 색채 견본 진열대가, 왼쪽에는 재단(커팅) 작업실과 거기서 수공 작업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마치 세상과 분리된 듯한 작은 세계다. 그러나 이곳은 매년 수백 톤의 모자이크용 색유리 조각판이 전 세계로 발송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쓰일 다채로운 색유리 반죽덩어리들이 구워지고 조각조각 잘려지느라 분주하게 돌아간다. 로마네스크 양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반짝이는 금빛 사각형의 색유리 조각판들을 한줌 움켜잡으니 상상력이 펼쳐진다.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ilia) 성당,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에(Opera Garnier)의 로비,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대성당(Basilica San Marco) 등은 오르소니 일가가 활기를 불어넣은 역사적인 장소들이다. 모자이크는 건축물과 그 역사를 같이 해왔으며, 무수한 색유리 조각판들은 세계적인 예술자산 중에서도 가장 풍부한 표현 틀에 생동감 있는 리듬을 부여하면서 이어져 왔다. 모자이크의 르네상스 시대라 말할 수 있는 19세기 말 이후부터 지금까지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에서 로베르 들로네(Robert Delaunay),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에서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에 이르는 뛰어난 화가들과 디자이너들이 모자이크의 강력한 표현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오고 있다. 모자이크는 분열시키기보다는 조합시키는 테크닉이기 때문이리라. 비잔틴과 라벤나(이탈리아의 도시), 그리고 아랍 세계를 장식한 화려한 모자이크 조각들은 무수한 빛깔과 더불어 우리를 추억에 젖게 한다.

그래서일까, 안젤로 오르소니 아틀리에의 수많은 색채 견본 진열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1 다양한 색감의 모자이크로 완성된 천사의 얼굴 2 세밀한 색채 조화 작업은 오르소니의 특징이다. 3 베네치아도무스 오르소니 호텔의 현대적인 욕실 4 섞이고 걸러지는 과정에서 생긴 사탕 같은 색채 조각들.



4



1 용해 중인 유리 조각들. 2 색계별로 배열된 색채 견본들. 3, 4, 5, 7 빛을 담아낸다는 의도로 색유리 반죽덩어리에는 얇은 금 조각편이 붙여진다. 손으로 잘라져 그 불규칙성으로 인해 보는 이들의 감성을 더욱 자극하는 미세한 금빛 색유리 조각편의 정교함. 6 오르소니 모자이크로 꾸며진 산마르코 대성당의 천사 장식.

있는 4천에서 5천 개에 이르는 색유리와 금, 은의 레퍼런스 목록은 - 고대의 예술자산을 복구하는 작업장들이 그렇듯 - 현대적인 건축 프로젝트에 뒤지지 않는다. 모자이크에 끼우는 색유리 조각판으로 변형되기 전에, 색유리 반죽덩어리들은 색채의 견본에 따라 엄격하게 분류되고 이를 통한 무한한 색 조합으로 인해 다채로운 색채의 색유리 조각판으로 잘라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색유리 반죽덩어리와 크리스탈 사이에 얇은 금 조각판을 삽입해서 만든 금빛 색유리 조각판들은 비잔틴 양식 건축물의 내부에서 정교한 빛을 표현한다. 금빛 색유리 조각판들은, 유동체 상태에서 혼합되어 화학적으로 중화 상태인 색유리 반죽덩어리들과는 다른,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발한다. 이러한 금빛 색유리 조각판들은 채움과 비움을 교차하면서 모자이크로 조합되며, 이때 간격 사이사이에는 불규칙성의 유희가 가미되어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탄생되는 것이다. 루치오 오르소니(Lucio Orsoni)는, 4대째로 이어져 온 작업실을 지키면서 추상적인 블랙과 골드 팔레트를 위해 고안된 색채 견본을 참조하며 작업의 순수성을 고집하고, 정교한 개인 작업을 한다. 더불어 그는 모자이크 예술에 열정을 품은 이들과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도무스 오르소니(Domus Orsoni) 저택과 안젤로 오르소니 아틀리에가 있는 장소에 모자이크 스쿨을 만들었다.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길 원할 만큼 문화유산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것이다.

베네치아를 또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다면, 산마르코 대성당의 로지아 데이 카발리(Loggia dei Cavalli) 뮤지엄을 통해 보이는 산마르코 대성당의 둥근 지붕을 바라보자. 성당 둥근 지붕의 내부와 외부는 전체적으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는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숨막힐 듯한 자태를 내뿜으며 비잔틴 양식의 화려함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수백만 개의 작은 색유리 입방체들의 변화무쌍한 컬러들은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적 효과를 과시한다. 다채로운 금빛과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으로 꾸며진 베네치아의 영원함을 기원하듯이. S

에디터 문비송 글 세실 바이아렐리(CÉCILE VIAIRELLI) 사진 베르나드 툴론(BERNARD TOUILLON)



'Pop-Up Art'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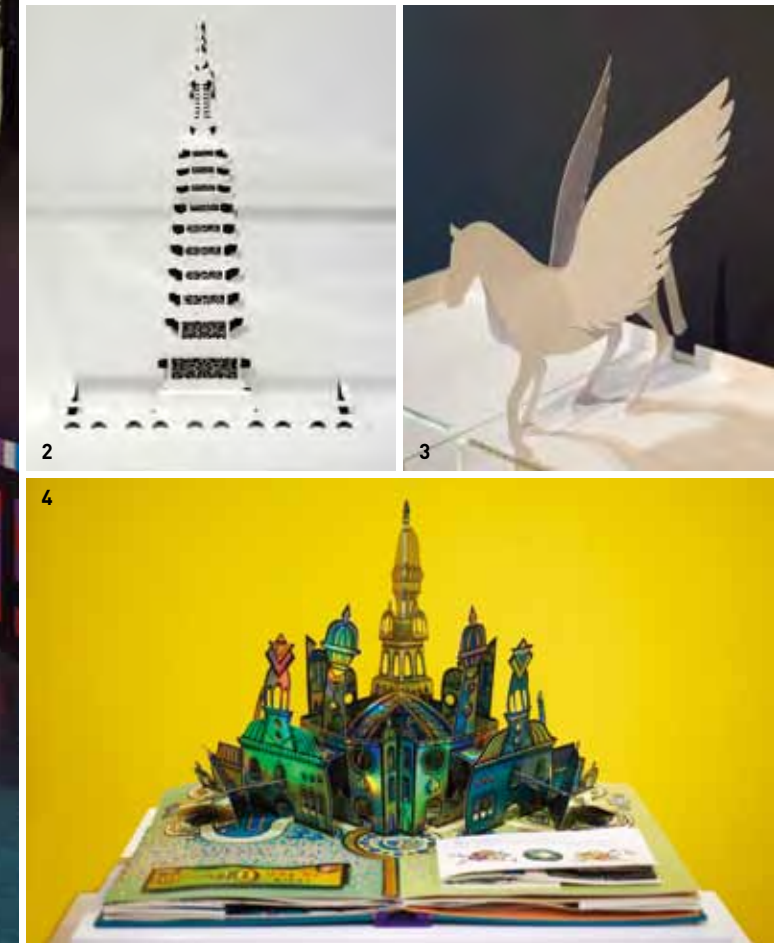
펼치고 오려서 펼쳤을 때 서거나 튀어나오는 책, 조형, 그리고 모든 종류의 입체 (3 dimensional) 시각미술로 당겨거나, 펴기, 풀리기, 달기 등 물리적인 외부 힘이 가해져 원래의 평면 형태에서 입체로 재구성되는 예술이다.

Pop-Up Art refers to an art genre in which two-dimensional form is reconstructed as three-dimensional form by lending physical forces such as pulling, spreading, rotating, or opening to two-dimensional objects. This genre encompasses all types of three-dimensional visual art including books and forms popping up when spread.

WHAT IS POP-UP ART?

팝업아트-종이의 펼침, 새로운 공간의 펼쳐짐

이곳은 2차원과 3차원이 한자리에서 느닷없이 교차하여 허구가 현실이 되는 듯한 환각을 안겨준다. 비교적 두툽한 책의 갈피 속에 은닉되어 있다가 책장을 펼치는 순간 마법처럼 다가와 확하고 펼쳐지는 이미지의 세계는 경이로움을 안긴다. 열고 펼치는 관자의 능동적인 참여 아래 전개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세계, <세계 팝업 아트>전.



‘회화’는 납작한 평면의 재료 위에 눈속임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를 일컫는 말이다. 그 표면은 땅바닥이나 동굴의 벽면, 나무판이나 천, 그리고 종이 등의 피부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할 때는 대개 종이나 캔버스(천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틀) 위에 물감과 붓질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거나 물질 자체를 보여주는 일련의 행위를 지칭한다. 그러니 모든 이미지는 맛있게 얇은 표면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사진이나 영상 또한 그 표면을 필요로 한다. 표면이 없다면 이미지도 불가능한 셈이다. 사진은 인화지라는 표면, 종이를 요구하고 영상, 이미지 역시 모니터의 평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미지를 생산하는 작가들은 특정 표면을 선호하고 이용하며 그 성질을 탐색하는 일이 우선된다. 시각이미지를 생산하는, 창조해내는 작가들은 모두 표면(피부) 위에서 일을 한다. 표면을 질문하고 그 표면의 가능성을 실험하며 그 표면을 새로운 존재로 환생시키는 일이 미술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종이 위에 연필이나 크레파스를 가지고 문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최초로 접한 화면이 종이이다. 물론 그 이전에는 방바닥이나 벽에 낙서를 하거나 여러 사물의 피부 위에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매일 종이 위에 문자를 기술하거나 낙서나 숫자, 혹은 다양한 메모를 남기며 산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종지와 필기구가 무용해지는 편이기는 하지만 종이 없는 일상생활을 상상하기 어렵다.

필기구를 손에 잡고 얇은 종이의 피부 위를 긁어나가는 이 촉각적 체험은 컴퓨터의 자판이나 휴대전화의 버튼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앞으로 종이가 소멸하고 무용해지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유난히 종이를 사랑한 민족이다. 우리는 종지로 도배를 하고 방바닥을 마감했으며 창호문을 단 집에서 태어나고 살아왔다. 방 안에는 그렇게 종이 내음이 진동하고 종지로 만든 온갖 생활용품과 종이책에 둘러싸여 살았다. 병풍과 그림 역시 종이 위에 그려진 것들이다. 주어진 종이 위에 모필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그렇게 수천 년의 세월을 함께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견오백 지천년’이란 말처럼 종이는 천년을 간다. 특히 우리의 한지는 그 내구성과 색깔 등에 있어서 탁월한 종이이다. 지금도 많은 작가들은 우리의 한지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조형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은은하고 매혹적인 색감과 물을 빨아들이는 흡수성, 질기고 견고한 성질, 그리고 먹과 채색을 머금으면 마냥 깊어지는 경지가 그렇다. 그러니 한국인들에게 종이라는 재료는 너무도 친숙한 재료이며 한국인의 심성과 미의식을 대변하는 매체다.

우리의 한지를 가지고 탁월한 조형적 성과를 이룬 현대 작가들도 꽤나 많다. 동양화가 이용로는 한지를 콜라주해서 문자추상을 시도했고, 권영우는 한지를 찢고 밀고 나간 흔적만을 보여주는가 하면 서양화가 박서보는 캔버스에 한지를 바른 후 연필로 드로잉을 하거나 손의 압력을 이용해 밀고 나간 자

1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 팝업 마스터들의 작가관에 서는 세 명의 팝업 아티스트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왼쪽부터 부르스 포스터(Bruce Foster), 벤자 하니(Benja Harney), 필립 위제(Philippe UG). 2 <다보탑>(박석, 2012). 3 <Pégase Popup for the launch of the parfum Voyage d'Hermès>(Mathilde Nivet, 2009). 4 <Wizard of Oz>(Robert Sabuda, 2000).



취를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정창섭은 다크를 캔버스에 밀착시키며 감각적인 작업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작가들의 흥미로운 종이작업은 무척 많다. 여기서 종이작업이란 종이 자체가 조형이 되고 종이의 물성을 응용한 작업을 말한다. 그만큼 오늘날 현대미술에서도 종이라는 재료는 매력적인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종이만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바탕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종이로 만든 입체 조형을 흔히 팝업아트라고 부른다. 어린 시절에 색종이를 가지고 놀면서 입체물을 만들던 체험을 떠올리면 된다. 종이라는 평면의 물질을 일으켜 세워 입체로 만드는 작업, 2차원의 종이로 3차원의 조각이 되는 경이적인 놀이가 그것이다. 흔히 크리스마스카드나 어린이들의 동화책을 펼쳐보다 보면 종이들이 일어서서 성이 되거나 나무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팝업아트라고 부른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책이 아니라 3차원의 조형물을 접하게 하여 책의 내용을 영화처럼 시각화한다. 책의 갈피 속에서 느닷없이 직립해 현란하고 환상적인 볼거리를 안겨주는 이 같은 체험은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그 같은 기법을 원용한 작업을 통칭해서 팝업아트라고 부르는데 이는 2차원과 3차원이 한자리에서 느닷없이 교차하여 허구가 현실이 되는 듯한 환각을 안겨준다. 비교적 두툼한 책의 갈피 속에 은닉되어 있다가 책장을 펼치는 순간 마법처럼 다가와 확하고 펼쳐지는 이미지의 세계는 경이로움을 안긴다. 열고 펼치는 관자의 능동적인 참여 아래 전개되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세계다. 아이들은 그러한 체험에 환호하고 놀라워한다. 이 팝업아트가 단지 카드나 동화책에 머물지 않고 동시대 현대미술에서 새롭게 환생하고 있다. 종이로 입체물을 만들고 종이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그 전망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작가들을 통해서다. 우리는 흔히 조각이라면 무겁고 단단한, 영속적인 재료를 가공해서 환영적인 이미지를 안기거나 혹은 그 물질 자체의 물성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추상조각을 떠올리지만 종이라고 하는 '무지하게 얇고 가벼운, 값싸고 흔한 재료를 가지고도 조각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이를 가지고 이룬 이 팝업아트는 기존 조각의 개념을 넘어서는 한편 새로운 시각으로 조각을 재정의한다. 이 너무도 가볍고 연약한 조각은 공기의 미세한 흐름에 흔들리고 섬세한 촉각에 순응하면서 위태롭게 자리한다. 아울러 문자(텍스트)와 함께 자리하면서 그 텍스트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조각이 된다. 그런가 하면 이 팝업아트는 종이와 칼, 가위만 있으면 가능하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저렴한 재료비, 그리고 놀이와 유희가 공존하는 미술행위이다. 무엇보다도 이 작업은 인간의 손맛, 손의 숨씨와 감각을 적극 요구한다. 종이를 매만지면서 오리고 자르고 이어나가는 체험을 통해 미술과도 같은 이미지를 불러내는 것이다.

〈세계 팝업 아트〉전에는 다양한 팝업북과 세계적인 소장자들의 희귀 소장본 및 초판본 그리고 한정본 등이 특별 전시되고 있다. 아울러 북, 드로잉, 회화, 오브제, 사진, 비디오 그리고 인터랙티브 설치 등 미술의 전 분야에 걸친 다채로운 작업을 만나볼 수 있다. 단순한 디자인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닌, 종이를 재해석하고 있는 팝업아트의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다. 회화적이고 조각적인 형태로 재해석하여 종이로 이룬 조형작품을 보여주는, 팝업아트의 가능성과 실험성을 동시에 만나게 해주는 이번 전시를 통해 풍요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지닌 팝업아트만의 힘과 매력을 만끽해 보았으면 한다. S 에디터 문비송 글 박영택(경희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미술평론가) 사진 이은숙 어시스턴트 권수현 도움 주신 곳 한기람미술관(02-580-1300), 아트센터 이다(02-3143-4360)



穿
雪花秀



한인부채로다스리라 素扇保



낮시간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가려주세요

속담에 “봄별은 머느리를 쬐이고,
가을별은 딸을 쬐인다”는 말이 있지요.
예부터 봄 햇살이 따가웠던 모양입니다.
따가워진 봄별 아래 있으면 온몸이 따스해져
온화한 기분이 느껴지지만, 피부가 자극을 받아
금세 붉어지고 세월을 재촉합니다.
낮시간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가려주세요.
우리 피부에 하얀 부채 역할을 해 주는 소선보,
매일 아침 잊지 말고 챙기세요.

손그림과 손글씨 이규복

한낮의 외부자극에 의해 쉽게
붉어지는 피부를 보호해 주고,
주름을 개선해 노화를 완화시키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
소선보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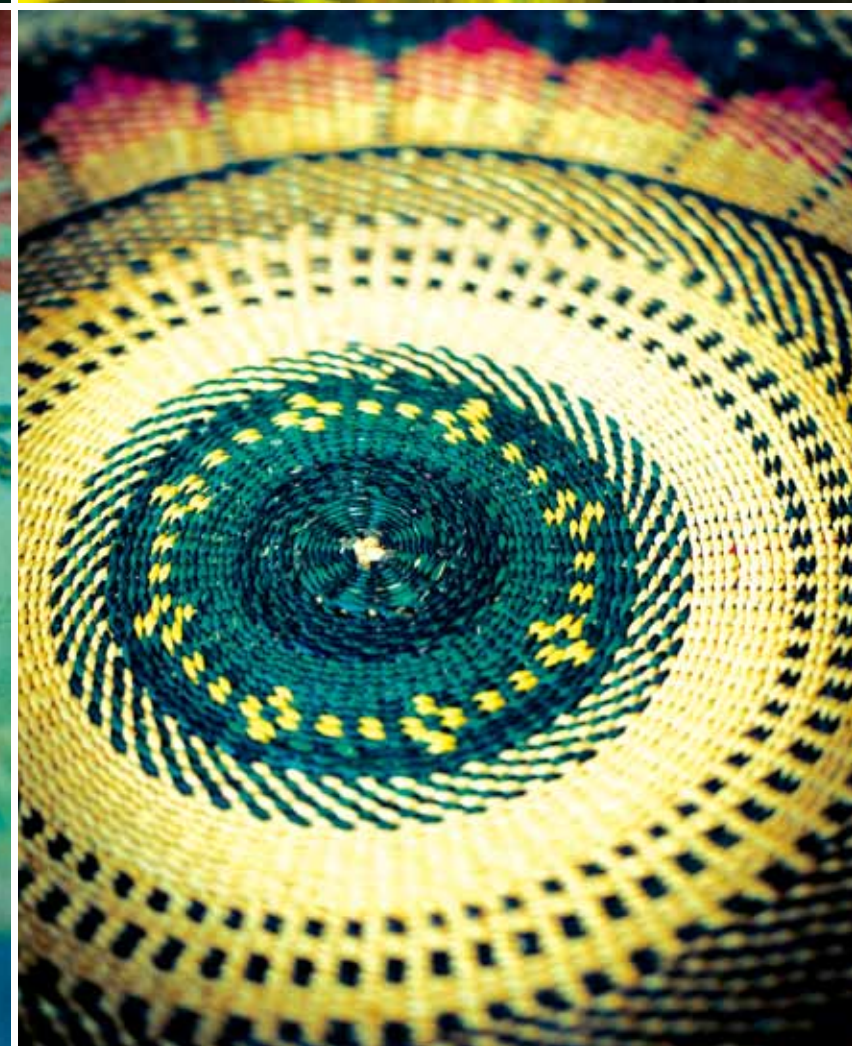


팝 아티스트 최정화

“예술은거북 털과 토끼 뿔인 ‘똥’ 합니다.”

세계적이란 말이 접두사처럼 붙는 작가를 만나는 일은 부담스럽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세계적’이란 호칭이 당최 뭘 뜻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체면 불구하고 당사자인 그에게 물었더니, “타자가 뭐라 부르든 무슨 상관인가. 그런 말 자체가 사대주의고 뻥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린다.





말 한 자락을 해도, 오뉴월 폭포처럼 시원시원한 그는 최정화다. 이름 앞에 '설치미술가'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그 용어가 그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러낸다. 때로는 건축으로 인테리어로 에디토리얼 디자인으로. 그 장르 역시 천방지축 처럼 보인다. 하지만 거기에는 일관되게 관통하는 그만의 목소리가 있다.

“세계가 호평해도 우리 혹은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죠. 뻔한 말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한마디 하자면, 우리가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인상만큼이나 어투 또한 다부진 그를 만난 건 일단 행운이다. 플라스틱, 화려하고 큰 꽃, 부풀려진 풍선 하 물며 청소 도구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국경을 막론하고 만날 수 있는 친화력 있는 소재를 통해 일상을 풀어 내는 덕분에 최정화는 해외의 수많은 비엔날레와 전시로부터 '더브 콜'을 받고 있다. 하물며 그는 일본의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흔해 빠진 휴대전화도 컴퓨터 도 외면하고 살면서 한 해의 2/3 이상을 국경 너머에서 사는 그다. 게다가 그를 만난 곳도 서울의 작업실 이 아닌, 설명까지 곁들여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이었으니, 자다가 떡을 챙긴 격이다.

작가와 함께 작품을 감상해본 사람은 안다. 굳이 설명이 따라붙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대구미술관에 입장한 관객은 흠칫 놀란다. 날개를 달고 고개를 쳐든 커다란 돼지(Love me!)가 바람이 들었다가 빠지며, 비 상이라도 하려는 듯 꿈틀댄다. 어른들이 70년대 시장통에서 보았던 빙수 그릇에 시선을 뺀 사이, 입장 권을 끊은 아이들은 초입에 놓인 작은 자석 무덤(Up to you)에 몸을 던져 미래성을 쌓는다.

그러다 시선을 돌리면, 18미터 높이의 대구미술관 중앙 홀 천장에 매달린 초록과 붉은색의 소쿠리 묶음(KABBALA)을 보곤 입이 벌어진다. 일단 그 규모에 놀라서다.

아, 그렇구나.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싸구려 플라스틱 소쿠리도 모여서 거대한 구조물로 바뀌면, 사람을 위압하는구나. 참, 인간이란 존재가 별 거 아니란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든다. 외국에서 그의 이런 작품을 '디지털적'이라고 평한단다. 그 얘길 듣고 바라보니 소쿠리 두 개가 포개진 모습이 점(dot)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더욱 희한한 건 천박하다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했던 플라스틱의 색감이 오묘하게 다가온다는 점이다.

'색색'이란 제목을 단 소파에 앉은 그에게 우리네 전통 색등을 차용한 이유를 묻자, “색이 자연의 일부니까요”라고 잘라 말한다. 전통이란 단어가 나오자, 그가 자세를 고쳐 잡고 정색을 한다.

“전할 전(傳) 자에 통할 통(統) 자를 쓰니, 전해져 지금도 쓰고 있는 그 무엇이어야 원뜻에 맞는데, 우린 안 쓰는 것들만 전통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사용 중이어서 생생활활(生生活活) 해야 하는데 말이죠.”

눈썰미 있는 관객은 눈치 챌 일이지만 그의 작품은 전시실 안에 있지 않다. 복도와 중앙 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있다. 설치작품을 미술관 내부로 끌어들이는 게 처음이라는 그는 “미술관 사용법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악동처럼 웃었다.

그의 작품들은 소재들이 모두 우리 일상에 널려 있는 싸구려 제품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심지어 각종 청소 도구는 플라스틱 통에 담겨 꽃(Sweeping Flower)이 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그의 작업은 시간과 공간 등의 경계를 부단히 허물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는다. 대체 뭘 언급하려고 하는 걸까?

“경계요? 허물기요? 당초에 경계란 게 있었나요? 사람들이 편의대로 경계를 만든 것이지, 천지인이 하나였는데 허물 게 뭐가 있겠어요. 굳이 이름 붙이자면 허무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리는 거겠지요.”

그가 일상용품을 작품화하는 것 역시 '아무나, 누구나 예술가'란 생각을 들려주기 위함일 것이다. 그의 이번 전시회 제목은 'KABBALA 연금술'이다. 도대체 그가 일상의 도구들로 치환하고 싶었던 금(金)

“전할 전(傳) 자에 통할 통(統) 자를 쓰니, 전해져 지금도 쓰고 있는 그 무엇이어야 원뜻에 맞는데, 우린 안 쓰는 것들만 전통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사용 중이어서 생생활활(生生活活) 해야 하는데 말이죠.”

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행복 혹은 꿈이라고 해도, 우리의 일상이나 물건들이 다 금인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곳에서 금을 찾으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행복이 뭐냐고요? 사람이 만 명이면 행복도 만 가지니까, 딱 잘라 이거다라고 말할 수야 없죠. 제 작품 중에 꽃으로 만든 5미터 크기의 물음표가 있는데, 제목이 답입니다.”

자기의 답을 찾는 과정이 답이고 삶이란 얘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답을 찾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일본 구키사키란 곳에서 퍼블릭 아트 의뢰를 받았는데, 가보니 땅의 기운이 좋아. 그냥 그곳의 흙으로 6미터 높이의 탑(Iro Iro)을 쌓았어요. 그곳 주민들이 관리해준다는 조건으로 거기에 꽃도 심었죠. 어떤 물건도 자연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얘기를 마치더니 그가 “죽기 직전에 할 일을 당겨 했으니, 이제 뭘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크게 웃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현지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공공미술을 하고 있는 최정화 작가. 이 대목에서 그의 작품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작품 중에 스위스의 세인트 모리츠 숲 속에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는 ‘Fruits, Flowers’란 게 있다. 바람으로 허기를 채운 배부른 풍선부터 바람이 다 빠진 것까지 다양한 풍선들이 즐비한 풍경을 연출한 작품이다.

“사람들은 바람 짙든 풍선, 즉 산 것만 풍선으로 치죠. 그래서 죽어가는 과정의 풍선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평소 한 줄 이상의 글을 쓰지 않는다는 그가 이번 전시회 도록을 만들며 장문(?)의 글을 썼다며 보여줬다. 여기 그 글을 옮겨 적는 것으로 그의 생각을 아주 조금이나마 엿보았으면 한다. 우리 모두가. S

에디터 최태원 사진 왕태균

‘뭇’

그렇 듯합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예술이고
보잘것없는 것들에서 우주를 느끼니
이도 예술이 되는 것이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예술이고
이 하찮은 것들도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니
이도 예술도 같은 헛된 것이요.

그렇듯한 깨달음이 예술인 ‘뭇’ 하고
이 텅없는 것들에서도 그렇듯한 깨달음을 얻으니
예술이 더없이 하찮은 듯한 것도 깨달음이지.

예술은
거북 털과 토끼 뽀인 ‘뭇’ 합니다.





푸른색의 집은
미향·美香으로 돌아온다



우리나라에는 소나무 송(松)자가 들어 있는 지명이 예순 곳이 넘는다. 그만큼 소나무는 우리 민족에게 친근한 나무이자 사랑받는 나무다. 뿌리부터 줄기까지 귀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특히 솔잎을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검어져 늙지 않으며 곡물을 끓여도 허기가 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고 <본초강목>에 쓰여 있는 등 예부터 '도사들의 선식'이라 불리며 신성시되기도 했다. 청명하고도 기품이 있어 신비롭기까지한 솔잎의 아름다운 향기를 접시에 담았다.



솔잎 카스텔라

실온에 두었던 달걀 5개에 설탕 100g을 넣고 충분히 거품을 낸다. 여기에 따뜻한 우유 40ml, 솔잎 효소 60g, 솔잎 향유 30g을 섞는다. 체에 내린 가루(솔잎가루와 밀가루를 1 : 4로 섞은 150g)를 2~3차례로 나눠 조심히 섞는다. 180℃로 예열된 오븐에서 약 20~30분간 굽는다. 완전히 식혀 조각낸 후 송화 가루를 뿌려 낸다. 어르신을 위한 디저트로 손색이 없다.

* **솔잎 향유 만드는 법:** 1cm로 지른 신선한 솔잎과 적당량의 식용유를 블렌더에 넣고 강력하게 간다. 병에 담아 놓으면 솔잎이 가라앉으면서 기름과 솔잎이 분리되는데 윗부분만 따로 보관해 두고 사용한다.



솔잎 잡곡밥

솔잎 잡곡밥은 품이 많이 들지 않고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어 상시 올릴 수 있어 좋다. 솔잎을 따서 맑은 물에 씻은 뒤 따뜻한 소금물에 한 번 더 씻어내 송진을 걸러낸다. 2mm 정도 길이로 짧게 잘라 하루 동안 불린 잡곡에 잘 섞은 다음 찌면 된다. 만약 솔잎이 씹히는 것이 싫다면 솔잎을 바닥에 깔고 삼베를 얹은 후 쌀을 올려 찌는 방법도 향을 음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솔잎이 맑게 하는 세 가지

솔잎이 맑게 하는 그 첫 번째는 정신이다. 사철 푸른 솔잎을 보며 마음을 다잡던 것이 어찌 옛 선비들뿐이겠는가. 우리 역시 소나무 가지를 빼곡히 채운 솔잎의 푸름을 보며 맑은 마음을 염원하였으니, 이는 군자의 길을 고민하던 선비들만의 전유물만은 아닐 것이다. 두 번째, 솔잎은 예부터 몸을 맑게 하는 귀한 약재로 대접받았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치료에 좋다고 쓰여 있는데, 현대 의학에서도 솔잎에 함유된 글리코키닌 성분이 혈당을 내려주는 등 우리 몸 대사의 근원이 되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귀한 약재임이 밝혀졌다. 세 번째, 솔잎은 피부를 맑고 젊게 유지하는 데 쓰임이 크다. 사과의 7배 이상 함유된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해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솔잎 효소와 솔잎 유, 솔잎차 등이 꾸준한 사랑을 얻고 있다.

소나무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수리나무가 솔나무로 변하고, 솔나무가 소나무로 변한 것인데, ‘수리’는 높다, 으뜸이라는 뜻으로 ‘소나무는 으뜸 나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람의 내외면은 물론 정신까지 맑게 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이보다 더한 으뜸이 어디 있겠는가. S

에디터 김희성 푸드아트 오징미 어시스턴트 양정은 사진 이종근 캘리그래피 이규복

* 솔잎은 생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기루, 발효 효소, 막걸리, 식초, 아로마 오일 등 다양하게 가공돼 쓰이고 있다. 솔잎주를 담은 술병에 솔잎으로 엮은 뚜껑을 만들어 덮으면 그 향이 배기되고, 멋스럽게 보인다.

꽃에 취하다, 물길에 흐르다

봄의 여린 바람이 고목의 침묵을 환히 깨우고, 노란 꽃길의 강가에 흐드러졌다.
노란 산수유도 이 봄이 지나면 꽃을 떨구고 붉은 열매를 매달겠구나.
지나가는 봄이 아쉬워 강가에 발을 담그는 늦은 봄의 오후.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대은암 남지정의 옛집에서
(大隱巖南止亭故宅)

-최경창 崔慶昌

門前車馬散如烟(문전거마산여연)
相國繁華未百年(상국번화미백년)
深巷寥寥過寒食(심항료료과한식)
茶莢花發古壩邊(채유화발고장변)

문 앞 수레와 말 연기처럼 흩어지니
정승의 변화함이 백 년을 못 갔구려
깊은 골목 적막해라 한식이 지났는데
해묵은 담장 가에 산수유꽃이 피었네

풍채 채(采), 물 맑을 담(淡), 채담, 설화수 채담 퍼펙팅
케이크파운데이션은 스크린망을 통해 걸러진 고운
파운데이션 입자가 답답함을 느낄 새 없이 내 피부처
럼 부드럽고도 편안하게 도포되어, 생기가 도는 해사
한 피부 표현을 선사한다.

연탄상기달가(燕灘上寄達可)

-김구용(金九容)

江頭春水正溶溶(강두춘수정용용)

把釣閑吟柳影中(파조한음류영중)

欲寄相思千里字(욕기상사천리자)

却嫌雙鯉未能通(각협쌍리미능통)

강가에 봄물은 정말로 도도히 흐르는데
낚시대 잡고 버드나무 그늘에서 한가히 읊는다.
그대 그리운 마음 천 리 먼 곳으로 전하려 해도
도리어 내 편지가 전해지지 않을까 두려워라.

미안피니셔는 녹차에 발효한 홍삼 성분이 피부의 힘을 키
워 피부 속 생(生) 윤기를 되찾아주는 제품.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 바르는 신유형 제품으로 하루 종일 생기
있는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채담 스무딩베이스는 각질 케어와 수분 공
급을 동시에 해주어 메이크업 효과를 높여
주는 메이크업 베이스. 촉촉하고 매끄럽게
피부결을 정돈해줄 뿐만 아니라 밀착력이
높아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준다.



한류, 그 뿌리에서 다시 꽃이 피다

한류의 파고가 높으니, 그 원형에 대한 해석 또한 분분하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걸 손꼽자면, 조선통신사의 취타대가 아닐까? 5세기 전, 듣도 보도 못한 악기를 들고 일본의 거리를 누빈 조선의 취타대를 마주한 일본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충격은 이후 일본 문화에 짙은 그림자로 남았다.



1

1 줄을 튕기면 같은 소리가 날 법한데, 거문고와 가야금은 쌍둥이처럼 생겼으면서 어찌 그리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일까? 2 해금 연주자 황한나 씨, 성장을 한 그녀의 모습이 마치 바다 곁에 고고히 자란 한 그루 나무와 다르지 않다. 3, 4 피리와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원들의 모습. 바쁜 공연 일정이지만 그들의 연주엔 흐트러짐이 없다.

한류의 원형이자 조선통신사 행렬의 꽃이며 위용을 더해줬던 취타대가 향했던 부산. 가야금 형상을 차용한 국립부산국악원(<http://busan.gugak.go.kr>)이 그곳에 들어선 게 2008년 10월의 일이니, 네 개 국악원 가운데 가장 늦게 개원한 막내 격이다.

하지만 한국 제2의 도시에 들어선 국악원답게 규모나 그 위상은 어디와 견줘도 물러섬이 없다. 토요일 상설무대의 공연을 보기 전, 하루 앞서 당도해 찾은 부산대학교 국악과의 이종대 교수.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 씻김굿의 이수자이자, 울산·부산광역시 문화재 위원인 그로부터 부산·영남지역의 소리에 대한 귀동냥을 할 심산이었다.

“부산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중요무형문화재라면 민속가면극인 들놀이(야류, 野遊) 동래야류와 수영야류가 있겠지요. 여기에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이 있었고, 연안어업이 성행했던 수영지역에 전해오는 좌수영어방놀이가 있습니다.”

대금산조와 동해안별신굿까지 합쳐 부산엔 모두 5개의 중요무형문화재 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 부산 국악계가 뜨거웠다고 할 순 없다. 국악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이 부산대학교 하나뿐이었으니. 그러던 것이 지금은 부산예술대학교와 동의대학교에서도 젊은 국악인이 배출돼 저변이 넓어지고 있긴 하다. 자, 이쯤에서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지자.

“부산과 영남의 소리는 다른 지역과 어느 대목에서 다른가요?”

“학자들은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의 소리를 메나리조라고 합니다. 깊은 산에서 머느리가 건너 골짜기에 있는 시아버지를 부르려면, 길고 높은 청으로 소리를 빼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특성을 가진 소리는 경북 상주지역쯤까지만 적용되는 거 같아요. 날 좀 보소로 시작하는 밀양아리랑만 해도 메나리와는 다르거든요. 차라리 경기·서울지역의 민요와 닮았다는 게 설득력 있죠.”

소리의 특성이 그리 된 것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성격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지리적으로 부산을 둘러싼 영남지역 사람들은 부산을 영남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정서를 갖고 있다. 외지인의 유입이 빈번한 상업도시인 까닭에 ‘우리’로 부르길 꺼린 것이리라.

“부산은 악기무(樂歌舞)에 뛰어난 예기(藝妓)를 양성하던 동래권번이 있어, 국악을 꽃피우기 좋은 조건이었지만, 진득하니 앉아 옛것을 지킬 사람이 적은 항구도시의 특성 탓에 전통이 이어지지 못한 점이 있어요.”

부산 국악의 이모저모를 들려준 이종대 교수가 학교 뒷산 솔밭을 배경으로 피리를 입에 물었다. 어느 것이 바람소리인지 피리소리인지 알 수 없는 그의 연주가 구슬뿔다. 세상의 온갖 타박을 받아내며 숨어서 배워야 했다는 그의 개인사를 들은 뒤라서였는지 모르겠다.

내년이면 시민공원으로 변신할 옛 미군기지와 길 하나를 두고 마주한 곳에 위치한 국립부산국악원. 대구와 울산이 30~40분 거리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10분 거리의 부전역에 KTX 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서울과의 거리가 더 좁혀진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국악원이라는 것이 장악과 조태원 씨의 설명이다.

상설공연 중 하나인 ‘토요신명무대’의 팸플릿을 펼친 순간, 12가지의 콘텐츠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마치 산해진미 가득한 진수선찬 같은 포만감으로 밀려 왔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관객의 입장이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한 단원들의 고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창단 때 입단해 연주단의 해금 연주자로 활약하고 있는 황한나 씨는 “정악을 연주하다 옷 갈아입고, 바



2



3

4

1



2



3



로 무용 반주를 해야 하는데, 연주자로서 짧은 시간에 전환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니다"라며 웃었다. 그를 보자, 전국에 산재한 국악원 중에 연주자들이 선호하는 곳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있죠. 친구 중에 씻김굿 때문에 다른 곳엔 시험도 안 보고 남도국악원만 지원한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연주자라면 정악은 물론 민속악에 창작까지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산국악원을 원하고요."

하지만 장점은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한다. 여러 장르를 하다보니, 아무래도 "깊이 있게 들어가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다. 하지만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건 국악원 안팎에 존재하는 고정관념이다. "2011년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별 무대로 두 번째 개인 발표회를 가졌는데, 돌아와요 부산항에처럼 부산을 소재로 한 대중가요와 영화음악을 선보였더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더군요. 국악원 소속이니 전통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해요."

그런 점이 '음악적 고민'에 속한다면, '현실적 고민'도 있다. 70여 명의 단원이 한 해 26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다 보니, 피로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대학 조교 시절부터 부산국악원 개원에 깊이 참여했고, 자원해서 고향의 국악원에 적을 둔 조태원 씨가 말을 보탰다. "힘들어하는 단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죠. 후발주자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공연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라서가 아니라 공연장 시설과 단원들의 자질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러기에 힘든 일정도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 국악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모토를 두고 있다. 부산국악원의 경우, 영남의 춤문화가 번성했던 점을 고려해 '춤화의 특성화'를 표방한 것이 사실이다. 권번의 영향으로 예기, 즉 여성의 춤도 성했고, 동래학춤 등 천민과 양반의 춤까지 다양한 계층의 무용문화를 적극 수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태원 씨는 "부산국악원의 성격을 '영남' 혹은 '부산'이라는 지역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악원과 달리 부산은 '대도시'라는 환경을 염두에 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영남권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존재 이유의 일부일 순 있지만, 전부여선 곤란하다는 건 분명하다. 5

글 최태원 사진 양태균

국립부산국악원

개관 6주년을 맞은 부산국악원은 '시도'와 '모색'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매주 금요일 해외 관광객을 위해 영어 해설로 진행되는 상설 무대를 새롭게 도입한 것도 부산국악원의 다양한 모색 가운데 하나다.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음향을 최소화해, 보다 우리 가락의 원음을 들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에 등재된 종묘제례악과 아리랑 등 6개 장르로 우리 국악의 특성을 쉽고 빠르게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루 정도만 머무는 크루즈 여행객들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승전무 가운데 북춤과 남도민요, 동래학춤과 영남성주굿 그리고 가사와 대풍류에 이어 좌수영어방놀이춤으로 숨가쁘게 이어지는 공연을 보고, 공연장을 나오는 순간 든 생각은 한 가지였다. 저들의 땀방울이 5세기 전, 일본 땅을 적신 취태대의 땀방울과 다르지 않다는, 바로 그것이었다.



1 통영 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승전무 중 북춤의 한 장면이다. 북춤과 칼춤으로 구성된 승전무는 병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춤으로 반주는 사나우즈타령의 가락을 연주한다. 2 양반의 의상 그대로 추는 동래학춤, 일반 민속춤과 달리 일정한 순서없이 자유분방한 즉흥성과 개인의 춤사위가 강조되는 춤으로 예술적 가치가 높다.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에 전승되는 민속놀이 어로작업 중 행해지던 멸치잡이 후리질 소리를 높이화한 것으로, 좌수영놀이 중 주요 장면을 춤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4 무대 뒤의 상실에 걸린 한복이 주인공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5 부산 토박이로 젊은 시절부터 국립부산국악원 탄생에 깊이 관여한 장악과 조태원 씨.

〈국악기행〉에 소개된 동영상 감상해 보세요

5/6월호 〈국악기행〉에 소개된 국립부산국악원의 공연 프로그램의 한 대목을 동영상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거나 설화수 홈페이지의 e북을 방문하시면 부산동래지방에 전승되는 〈동래학춤〉과 어방의 어로작업 중 행위를 높이화한 〈좌수영어방놀이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0가지 찻자리 이야기 자연과 사람을 향하다

차 한 잔에 담긴 자연과 사람을 향한 어울림과 공경.



벗에게 올리는 공경의 마음이 어우러지다

‘혜장의 많은 제자 중에/ 색성이 가장 뛰어났네./ 이미 화엄교를 마쳤고/ 겸하여 두보 시까지 익혔구나./ 새싹 찻잎을 불에 잘 말려서 진중하게 외로운 유배객을 위로하네.’

차를 즐겨 마신 다산 정약용은 그가 우거하던 굴동의 뒷산 이름인 ‘다산(茶山)’을 자신의 호로 쓸 만큼 차를 아끼고 사랑했다. 그는 혜장선사 이외 색성과 자홍 같은 학승과도 깊은 교류를 하였으며, 특히 초의선사와의 자별한 교분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위의 시는 땅끝의 유배지에서 외로운 나그네가 되었을 때 차를 보내준 그의 은혜에 고마움을 전하는 시한 수다. 이 시에는 다산의 차에 대한 사랑과 베푸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씨가 유난히 자별하게 나타나 있다. 차를 사랑하는 다산과 벗들의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우리나라의 공경과 배려는 아름다운 시와 호국의 마음을 고취시킨다.

우리는 차를 도(道)라고 한다. 그래서 다도(茶道), 물질인 차 속에 정신인 도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차 속에는 무궁무진한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일상성이 있다. 그래서 차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조직과 조직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시대의 차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선인들은 사람만 공경하지 않고 하늘과 물건까지도 공경하라고 가르쳤다. 공경하는 마음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 적절한 강수량과 일사량 그리고 토양 등 까다로운 재배조건만을 고집하는 차나무에, 겨울을 이겨낸 차로 만든 봄날 한 잔의 차에 자연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깃든 공경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유다.

귀한 사람, 귀한 찻자리. 삼다연 제주 영굴

귀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찻자리엔 그만큼 귀한 차를 올리는 것이 예일 것이다. 오설록의 삼다연 제주 영굴은 여름 뜨거운 별을 먹고 잘 자란 제주 특산물인 영굴과 싱그러운 미숙과 감귤을 오설록 후발효차 삼다연과 블렌딩하여 만든 향긋하고 상큼한 차다. 제주에서만 생산이 되는 특산물인 영굴은 레몬보다 비타민 C가 1.5배 더 풍부하고 철분과 칼슘의 흡수력이 강한 기능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신선이 먹는 귀한 굴이라고 불린다. 여기에 제주 직영다원에서 채엽한 녹차를 제주 삼나무통에서 숙성해 삼나무의 그윽한 향이 특징이며 혈액순환과 수족 냉증에 효과 있는 후발효차인 삼다연이 함께했으니 최고의 차이자 벗에게 올리는 귀한 차가 아닐 수 없다. 영굴 과피와 향긋한 에센스 블렌딩으로 상큼한 맛이 나는 삼다연 제주 영굴로 봄날 그윽한 찻자리를 꾸며보는 건 어떨까.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도움 주신 곳** 박혜리공방(02-542-4692),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참고 문헌** 《역사 속의 우리 다인》(천병식, 이은 아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차》(어연스님, 현암사)



위 귀한 찻자리에 어울리는 삼다연 제주 영굴. 차씨는 정소영의 식기장, 분홍빛 방식은 박혜리공방. 왼쪽 백자 다관과 찻잔, 찻잔 받침, 포크, 청자 포크받침, 화병으로 쓴 백자 주병, 왼쪽 아래 꽃이 그려진 접시 모두 정소영의 식기장. 연꽃빛 비단 방식은 박혜리공방.

해사한 안색의 근본을 찾다

맑은 피부를 위한 선조들의 지혜, 열을 잡고 빛을 밝히다.



가을별에 비해 50% 이상의 일사량을 가진 봄별, 그래서 봄이면 화이트닝 케어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봄철은 가을철에 비해 습도는 낮고 자외선 투과량은 높아 쾌적한 가을별에 비해 더 따갑게 느껴진다. 특히 짧은 일조시간으로 자외선 영향이 거의 없는 겨울 동안 자극을 받지 않던 피부가 갑자기 많은 자외선을 받으면 손상될 위험이 더 높은 것. 선크림에 파운데이션까지 두텁게 발랐는데도 어둑어둑하게 봄별에 그을린 얼굴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가리기에 급급한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없을까.

옛 여인들에게 있어서도 하얀 피부는 미인의 기준이 되었다. 삼흑(까만 눈동자·눈썹·머리카락), 삼홍(붉은 입술·볼·손톱)과 함께 미인의 삼대 기준으로 꼽혔던 삼백(하얀 살결·치아·손). 이 중 삼백의 하얀 살결은 지금까지도 현대 여성들의 오랜 갈망이 되고 있다. 아니, 이제는 하얀 피부를 넘어선 투명하고 빛나는 피부를 원한다. 옛 기록엔 '소주방(궁중의 음식을 담당하던 곳) 궁녀들의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미색이 짙었다'고 전해진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쌀뜨물 세안이 비결인데 쌀눈에는 비타민 B₁, B₂, B₆와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백과 활성효과를 돕는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쌀뜨물로 세안했다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화'를 다스려 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마음자세도 중요하다. 더불어 화이트닝 케어 제품으로 피부 밖의 균형을, 항산화 효소를 돕는 음식으로 몸의 근본적인 리듬을 되찾아 피부 안과 밖의 균형을 잡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화이트닝 케어의 해답일 것이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대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비믹스(010-9069-9074)

자정삼백단이 피부 활성과 탄력을 높여주어 맑게 빛나는 안색으로 바꿔주는 자정미백에센스.



하얀피부를넘어선 윤기나는 맑은피부를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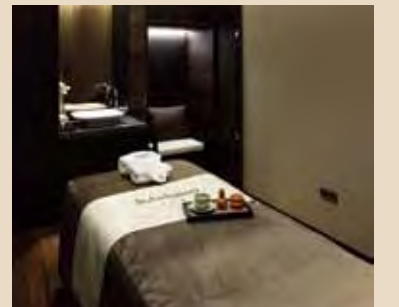
언젠가부터 화이트닝은 안티에이징이나 수분 제품의 영역을 넘으며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건조한 화이트닝은 없다는 뜻이기도. 특히 설화수의 자정미백에센스는 피부 속에 흡수되어 자외선과 적외선 등의 외부열 자극 및 노화로 인한 직적함을 스스로 밝히는 한방 미백 에센스다. 좀 더 특별한 케어를 받고 싶다면 설화수 스파를 추천한다. 스파 전문 테라피스트들의 숙련된 기술과 설화수 제품들을 통한 최고의 케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설화수 스파의 미백집중 프로그램은 피부를 맑고 환하게 가꾸어준다.

*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롯데백화점 잠실점(4층)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의 02-411-0262

롯데호텔 서울점 운영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의 02-318-6121



|연극·뮤지컬|

양희은의 노래로 만든 특별한 선물 뮤지컬 <아름다운 것들>

한국 포크 음악의 중심축에 있던 양희은과故 김광석의 노래를 뮤지컬 무대에
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추억과 희망을 선물하는 힐링 뮤지컬 <아름다운 것들>.
에디터 문비송



2010년부터 시작된 '세시봉'의 재일풍은 가히 놀라웠다. 60~70년대를 살아
온 세대들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감동을 선사한 '세시봉 콘서트'는 연일
매진을 기록했다. 이번 봄, 세시봉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양희은과故 김광석
의 노래를 뮤지컬 무대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뮤지컬 <아름다운 것들>은 데뷔 42주년을 맞고 있는 가수 양희은의 뮤지컬
배우로서의 변화가 있어 더욱 반갑다. 그러나 그녀의 뮤지컬 출연이 처음은
아니다. 뮤지컬 <어디만큼 왔나>라는 자전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이미
두 차례 관객을 찾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연될 뮤지컬 <아름다운 것들>
은 자전적인 내용에서 탈피, 관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사연들로 꾸며져
더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아침이슬', '상록수', '아름다운 것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등 양희은이 부른 아름다운 곡들, 여기에 따뜻한 이야기까
지 버무렸다. 환갑을 맞이하여 자신에게 운전면허증을 선물한 김여사가 택
시기사로 취직하며 더 이상 남편과 자식의 뒷바라지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선언한다는 이야기들은 양희은의 노랫말이 주는 따뜻함과 희
망의 메시지와 함께 작품 안에 고스란히 녹아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이
다. 60대 부모 세대와 30~40대의 자녀 세대가 함께 보기에도 좋은 공연이
될 것이다.

일시 6월 2일까지 **장소**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문의** 1544-1555 **관람료**
VIP 10만원 / R 8만원 / S 5만원

뮤지컬 <러브 인 뉴욕-올 댓 재즈>



매혹적인 재즈 안무와 음악으로 관객을 사로
잡으며 2010년 초연된 그해 '제16회 한국뮤지
컬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작곡상,
안무상 등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는
뮤지컬 <러브 인 뉴욕-올 댓 재즈>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다. **일시** 6월 23일까지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
년홀 **문의** 070-7630-2588 **관람료** R석 6만원 / S석 4만 5,000원

뮤지컬 <젊음의 행진>



뮤지컬 <젊음의 행진>은 90년대의 대표적인
만화 캐릭터 '영심이'가 33살로 성장한 이후
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다. 이승철의 '마
지막 콘서트',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등 8090시대
를 대표하는 곡들을 만나보게 될 것. **일시** 6월 23일까지 **장소** 코엑스아티움 현대
아트홀 **문의** 02-739-8288 **관람료** VIP석 6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

뮤지컬 <그날들>



창작 뮤지컬 <그날들>은 청와대 경호실을 배
경으로 만든 뮤지컬이다. 유준상, 오만석, 강
태을, 방진의 등 실력파 뮤지컬 배우들의 목
소리를 통해 '이등병의 편지', '변해가네', '서
른 즈음에' 등故 김광석의 주옥같은 노래들
을 들을 수 있다. **일시** 6월 30일까지 **장소** 대학로 뮤지컬 센터 대극장 **문의** 1577-
3363 **관람료** VIP석 9만 9,000원 / R석 7만 7,000원 / S석 5만 5,000원

뮤지컬 <해를 품은 달>



국내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소설
이자 드라마로 알려진 '해를 품은 달'이 뮤지
컬로 초연된다. 가상의 왕 성조 치세의 조선
시대 태양의 운명을 타고난 환과 달의 운명
을 타고난 연우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
린 뮤지컬 <해를 품은 달>이 기대된다. **일시** 6월 8일~23일까지 **장소** 용인 포은아
트홀 **문의** 1588-5212 **관람료** VIP석 10만원 / R석 8만원 / S석 6만원

|콘서트|

비올라와 피아노의 역사적 조우 <유리 바슈메트 &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역사상 최고의 비올라 연주자로 불리는 유리 바슈메트와 그가 이끄는 모스
크바 솔로이스츠 그리고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에 빛나는 피아
니스트 손열음이 펼치는 무대.



비올라계의 슈퍼스타로 불리는 유리 바슈메트와 그가 이끄는 모스크바 솔
로이스츠가 2년 만에 내한 공연을 갖는다. 유리 바슈메트는 이탈리아의 라
스칼라, 네덜란드 콘체르트하바우 극장을 비롯해 세계적인 콘서트홀에서 독
주회를 가진 최초의 비올리스트로 연주 외에도 문헌 발굴, 편곡, 창작곡 의
뢰를 통해 비올라 레퍼토리 확장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의 열정적인 비올
라 연주 활동은 많은 현대 작곡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켜 슈니트
케, 칸첼리, 태브너, 구바이둘리나 등 저명한 작곡가들이 그를 위해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과 작품들을 헌정했다.

이번 공연에는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거둔 손열음이 바흐
피아노협주곡 1번 BWV1052를 연주한다. 2009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에곤 페트리 편곡-바흐 칸타타 BWV208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의
명연을 비롯해 평소 작곡가의 심원까지 몰입하는 손열음이 차이콥스키 콩
쿠르 이후 한창 탐구를 기울이는 바흐 피아노협주곡 1번을 준비했다. "바흐
음악은 근원을 추구하는 우주 같은 음악"이라고 정의하는 손열음은 바로크
연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는 솔로이스츠와의 협연을 통해 전 시대
를 아우르는 예민한 감각과 명민한 지성, 역사와 대화하는 피아니스트의 진
면목을 선보일 것이다.

일시 5월 29일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99-5743 **관람**
료 R석 14만원 / S석 10만원 / A석 7만원 / B석 4만원 / 휠체어 S석 10만원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13 'Jazz UP Your Soul'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
세련된 어쿠스틱 사운드와 아름다운 감수성
의 듀오 '킹스 오브 칸비니언스', 재즈계의 신
성 '바우터 하멜', 한국 재즈계의 거목 '정성
조 빅밴드' 등 국내외 정상급 재즈 아티스트
들이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일시** 5월 17~18일 **장소** 올림픽공원 **문의** 02-563-
0595 **관람료** 2일권(입장권) 19만 4,000원 / 1일권(입장권) 12만 1,000원

'아카데미 오브 에인선트 뮤직' 내한 공연



'고음악'은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파 등 클래
식 음악을 그 시대의 악기와 연주법으로 연
주하는 것. 고음악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오브
에인선트 뮤직이 내한 공연을 갖는다. 고음악
최고 레벨의 소프라노 임선혜가 함께한다.
일시 6월 18~19일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99-5743 **관람료**
R석 14만원 / S석 11만원 / A석 9만원 / B석 6만원 / C석 4만원 / 휠체어 S석 11만원

국립무용단 <그대, 논개여!>



국립무용단이 논개와 왜장의 깊이 있는 심리
묘사와 화려하고 역동적인 군무가 어우러진
공연 <그대, 논개여!>를 선보인다. 한반도를
뒤덮은 왜인들의 침략 앞에 애국심으로 온몸
을 던진 논개의 영혼이 실린 듯한 무대를 만
나보자. **일시** 6월 13~16일까지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2-2280-5830
관람료 VIP 7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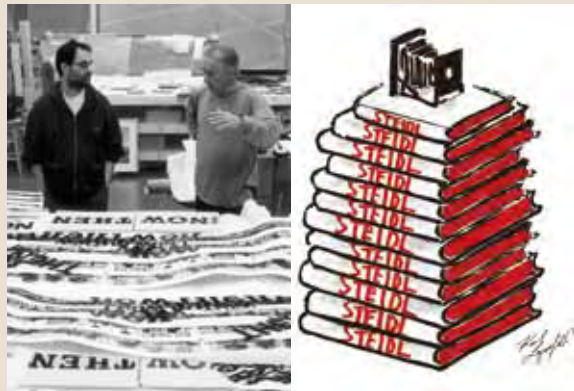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HELLO>



10년 만에 19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가
왕(歌王)' 조용필이 전국 투어 '헬로(HELLO)'
로 팬들을 찾는다. 관객과 호흡하기 위해 '무
빙라이저 스테이지'와 미디어 월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 **일시** 5월 31일~6월 2일
장소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문의** 02-541-7110 **관람료** VIP석 15만 4,000원 / R석
14만 3,000원 / S석 12만 1,000원 / A석 9만 9,000원 / B석 7만 7,000원

종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만드라 〈How to Make a Book with Steidl: 슈타이들 전〉

책을 예술의 경지로 이끈 세계적인 출판계의 거장 게르하르트 슈타이들(Gerhard Steidl)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관객들은 공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책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완벽주의 아티스트들의 히어로이자, 살아 있는 아트 북의 전설 슈타이들은 책과 종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왔다. 패션, 사진, 회화, 문학 등의 다양한 예술 장르뿐만 아니라 상업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출판, 인쇄의 과정을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완성시킨 인물이다.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선구자 '로버트 프랭크'(Robert Frank), 현존하는 팝 아트의 거장 '짐 디인'(Jim Dine)과 '에드 루슈아'(Ed Ruscha), 노벨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귄터 그라스'(Gunter Grass), 샤넬의 수장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 그리고 에르메스와 롤스로이스를 새롭게 기록한 독보적인 사진 작가 '코토 볼로포'(Koto Bololo)에 이르기까지 세기를 빛낸 아티스트들이 슈타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많은 책을 만들어 왔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문학인,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구성되는 이번 전시에는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고 슈타이들이 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40년간 쏟아부은 노력과 열정, 장인 정신과 실험 정신이 깃든 총체적인 예술 세계가 공개된다. 전시에서는 '책'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완성되기까지 슈타이들과 아티스트들의 협업과정을 볼 수 있다. 슈타이들의 손을 거쳐 출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제의 예술작품이 어떻게 책에 담겼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종이라는 매개체가 예술적 창작물인 책으로 재탄생 되는 여정을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다.

일시 10월 6일까지 장소 대림미술관 문의 02-720-0667 관람료 성인 5,000원 / 학생 3,000원 / 어린이 2,000원

〈조르주 루스의 공간, 픽션, 사진〉 전



프랑스의 세계적인 설치예술가이자 사진작가인 조르주 루스의 작품이 한국을 찾는다. 2차원과 3차원이 교차하며 자아내는 조형미는 관객에게 '평면과 입체', '실재와 환영'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일시 5월 25일까지 장소 한가람미술관 문의 02-580-1300 관람료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학생증 자참) / 6~7세 2,000원(증빙자료 자참)

〈더 완벽한 날: 무담 록셈부르크 컬렉션〉



우리는 어제와 오늘의 삶 속에서 희망과 낙관, 때로는 회의와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하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우리 삶의 복잡다단한 면모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내일의 모습을

설치와 영상 사진을 통해 그려본다. 일시 6월 23일까지 장소 아트선재센터 문의 02-733-8945 관람료 성인 5,000원 / 학생 3,000원

〈미장센〉 전



미장센(mise-en-scène)은 원래 연극무대의 장면 연출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영화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시각적인 구성요소를 통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영화적인 도구를 활용한 작가들을 통해서 현대미술에서 미장센 장면 연출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일시 6월 2일까지 장소 삼성미술관 리움 문의 02-2014-6900 관람료 일반 7,000원 / 초·중고생 4,000원

〈윤영로: 정신의 흔적〉



한국 현대추상회화의 대표적인 원로작가인 윤영로의 50년 화업을 총망라하는 전시가 열린다. 1960년대부터 척박했던 한국 현대판화의 태동과 위상 정립을 위해 헌신했던 한국 화단의 대표적인 원로작가인 그의 작품을 통해 한국적 추상회화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일시 6월 23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문의 02-2188-6232 관람료 3,000원

제주도를 만나는 두 가지 방법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 제주도 편〉 〈제주도 비밀코스 여행〉

이미 전 국민의 휴양지에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한 아름다운 섬 제주도. 모두가 아는 제주도가 아닌 색다른 제주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책 두 권.



국내 여행 안내서 중에서도 제주 안내 책자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대부분은 유명 관광지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렌터카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안내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제주도를 향한 구세주 같은 책이 나왔으니 바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7 제주도 편〉과 〈제주도 비밀코스 여행〉이다.

인문서 최초 300만 부 판매 돌파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번 제주도 편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 역사와 사람 이야기로 풍성하다. 고대의 유적부터 일제시대와 4·3 항쟁의 상흔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의 문화유산을 저자 특유의 맛깔난 화법으로 소개한다. 더불어 제주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도 만날 수 있다. 저자가 문화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접적으로 발견한 용천동굴 이야기는 세계적인 평가를 통해 제주 자연의 가치에 한층 더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 주었다. 〈제주도 비밀코스 여행〉은 제주도에서 살며, 여행하며 보낸 700일의 시간 동안 저자가 보고 듣고 느낀 제주의 숨은 비경을 소개하는 책이다. 스마트폰 어플로는 만날 수 없는 꼼꼼한 정보와 감성, 다양한 실전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두 책은 제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통해 우리에게 제주를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7 제주도 편〉 지은이 유희준 출판사 창비
〈제주도 비밀코스 여행〉 지은이 최상희 출판사 북노마드

우리는 왜 여행하는가 〈철학자의 여행법〉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오프레가 말하는 여행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책. 여행을 저항으로 여기는 작가는 떠남으로써 반역하며, 여행 전에 욕망을 부풀리고, 여행을 통해 자아를 만나고, 여행 뒤엔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말하라고 한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서양 철학자들이 등장해 저자의 여행론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지은이 미셸 오프레 출판사 세상의모든길들

세계를 바꿀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노베이터의 탄생〉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으며 세계는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설립자이자 교육 전문가인 저자는 미래 경제의 성장 동력은 혁신에서, 그리고 그러한 혁신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젊은이들의 육성에 있다고 말한다. 다음 세대의 혁신가가 되고 싶은 젊은이, 그리고 그들의 부모, 교육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목할 만한 책. 지은이 토니 와그너 출판사 열린책들

동서고금의 걸작을 읽다 〈세상의 모든 고전-동양문학 편〉



고전(古典)이란 '특정 시대와 특정 공간을 초월하여 오랫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책'을 말하며 대체로 '객관적 불멸성'을 담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지성사와 학문 예술사에서 고전은 매우 큰 역할을 해 왔다. 이 책은 고전에 다가서고 싶지만 두툼한 분량과 어마어마한 값이에 섣뜻 손을 대지 못하는 '고전 초보'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지은이 반덕진 출판사 가람기획

조선 최고의 리더십을 만나다 〈퇴계처럼〉



퇴계 이황은 조선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으로 그가 살았던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이다. 이 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학자 퇴계가 아닌 자연인 퇴계의 인성에 깃든 섬김의 리더십을 말한다. 여성을 받든 유학자인 퇴계가 조선 유학의 중장이 되는 과정을 그리며 백성과 함께했던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지은이 김병일 출판사 글항아리

공연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역사이자 클래식으로 불리는 <브로드웨이 42번가>가 3년 만에 다시 우리 곁을 찾아왔다.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엽서를 통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람 일정 6월 중

공연 장소 디큐브아트센터

공연 티켓 R석 6명(1인 2매)

* 티켓은 관람 당일 공연장에서 드립니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2009년과 2010년 한국 무대에 올려지며 각기 유료 객석 점유율 95%, 90%의 흥행 기록을 세운 지상 최대 쇼 바라이어터다. 브로드웨이의 역사이자 클래식으로 불리는 <브로드웨이 42번가>가 2013년 5월, 3년 만에 다시 찾아와 관객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브로드웨이 42번가>의 흥행 요인 첫 번째는 바로 뮤지컬의 기본인 음악과 안무. 스윙과 그루브가 넘치는 재즈 풍의 노래, 공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펼쳐지는 경쾌한 탭 리듬의 군무는 원작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뮤지컬 입문자에게 필수 관람 작품으로 통하는 <브로드웨이 42번가>의 화려한 귀환에 벌써부터 관객들의 예매 행렬이 대단하다. 최근 뮤지컬계에서는 안정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가 활동을 즐기며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골든에이지 관객층의 파워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3 <브로드웨이 42번가>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스타 캐스팅과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열풍으로 20~30대의 관객뿐만 아니라 골든에이지 관객층의 큰 호응도 예상된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악명 높은 카리스마 연출가 '줄리안 마쉬'役に 박상원과 남경주, 과거 유명세를 떨쳤던 뮤지컬 여배우 '도로시 브록'역에는 박해미, 홍지민, 김영주가 캐스팅되어 다양한 버전의 <브로드웨이 42번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주인공공 '페기 쇼어'역에는 실력으로

로 업선한 신인 정단영, 전예지가 캐스팅돼 작품에 신선함을 더할 듯.

관객들은 뉴욕 브로드웨이 거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무대 세트, 화려한 의상과 신나는 탭댄스로 브로드웨이의 뜨거운 열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디큐브아트센터에서 5월 11일~6월 30일에 걸쳐 진행되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7월 9~28일까지 성남아트센터에서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S

에디터 문비송 도움 주신 곳 CJ E&M(02-371-9162)



피부에 진상하는 한방 트리트먼트의 진수 설화수 스파 두 번째 오픈

설화수 제품과 심신을 조화롭게 해주는 정성스러운
손길이 더해진 설화수 스파가 롯데호텔 서울에
5월 1일, 그 두 번째 문을 열었다.



설화수 스파 1호, 잠실점

정통 한방의 지혜가 담긴 설화수 제품으로 지친 피부를 다스리고, 전문 테라피스트의 정성으로 신체 균형을 조화롭게 하며, 예부터 내려온 전통의식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곳, 바로 설화수 스파다. 국내엔 유일하게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해외엔 홍콩에 입점해 있던 설화수 스파를 이제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설화수 스파는 외부 환경의 다양한 변화와 내면의 스트레스로 인한 현대인의 불균형한 심신을 전통 한방요법으로 치유하는 곳이다. 설화향, 세죽, 설화음, 설화정(향진포 마찰)의 4단계로 이루어져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의식인 '정(精)', 옥, 호박, 백자, 자음단불, 설화지 등의 전통적인 도구들로 몸속 진액의 흐름을 바로잡아 주는 '기(氣)', 전문 테라피스트의 숙련되고 정성스러운 케어인 '신(神)', 이 세 가지 요소의 어우러짐을 통한 설화수의 상생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은 고객의 내면과 외면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준다. 무엇보다 설화수 스파의 특징점은 기존 설화수 제품들의 기운에 전통적 도구들을 사용해 보충하는 데 있다. 인삼의 따뜻한 기운을 지닌 자음생 라인인 미네랄의 찬 기운을 가진 옥으로, 방어하는 기운을 지닌 진설 라인은 치유하는 기운을 가진 호박으로, 피부 속 수분의 흐름을 지닌 수올 라인은 강력한 정화 기능을 가진 백자로 마사지 하는 것. 특별히 이번 롯데호텔 서울에 입점한 설화수 스파는 토판염 소금으로 만들어진 '솔트



설화수 스파 2호, 롯데호텔 서울점



룸'을 선보인다. 따뜻한 소금의 기운을 통해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고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공간인 솔트 룸에서 먼저 몸의 흐름을 좋게 한 뒤 관리를 시작하도록 한 것. 더불어 다함설을 이용한 프로그램과 호텔 비즈니스 고객들을 위한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2개 더 개발했다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내면과 외면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본연의 아름다움을 이끌어 내도록 돕는 설화수 스파에서의 극진한 케어는 내 피부에 선물하는 최고의 호사가 될 것이다. S



page 26 | **Quality Life**

<Quality Life> is a column about tracing the steps of Korean ancestors to explore the lifestyles and aesthetics of the past beyond cultural heritages. The noble scholars and women of Korea believed that adjusting to nature and living with it was the essence of wisdom and life. This issue explores the leadership of three queens of Korea who demonstrated a leadership of generosity and integrity in the times of unification and fall - Queen Seondeok, Queen Jindeok, and Queen Jinseong.



page 38 | **See the Detail**

<See the Detail> is the story of Korea's beautiful landscapes as told by a documentary photographer. Let's find the premium spaces created by the Joseon Dynasty and carefully observe the Korean aesthetics as new and powerful images. This issue takes you to Yangdong Village of Gyeongju, which is registered with UNESCO as a World Heritage site, to explore its landscapes and the living culture and lifestyles of our Korean ancestors from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eyes of a photographer.



page 52 |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introduces the philosophies of brands that have created world-class design heritages. Listen to the story of their timeless tradition that made their brand philosophies cultural heritages. This issue takes you to the atelier of Orsoni, the mosaic tile brand founded in 1888, in Venice, Italy. You can explore Orsoni's colorful tiles and elegant designs that you can find in many places worldwide, including Westminster Abbey in London and the palaces of Saudi Arabia.



page 56 | **Art Class**

<Art Class> is a column about exhibitions recommended by renowned art critics in Korea for art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This issue features <World Pop-up Art Exhibition> held at Hangaram Design Art Museum. This exhibition introduces the works of world-class masters of pop-up art and collaboration works with premium designer brands, including Hermes and Bulgari.

page 62 | **Meet the Artist**

<Meet the Artist> introduces young artists who have come to be widely loved in South Korea and abroad by creating modern artworks that reinterpret Korea's traditional materials and techniques. This issue introduces some of the younger artists who create contemporary artworks that reinterpret the traditional materials and techniques of Korea to gain popularity globally. This issue features interviews Jung Hwa Choi, the artist who is exploring the Korean-style pop art with traditional Korean colors, stories, and sentimentality.



page 68 | **The Thesaurus of Sulwha**

<The Thesaurus of Sulwha> is the story of the ingredients in Sulwhasoo products that integrate the essence of traditional Korean herbal science. Sulwhasoo contains ingredients such as ginseng, pine needles, soy, and mugwort. These are rare ingredients that were traditionally an essential part of Korean diet. This issue presents food performance using pine needles, a source of Sulwhasoo's four fragrances. The menus are Western-style dessert prepared with pine needles with new sprouts, steamed rice with mixed grains, and flavor-filled pine needle wine.



page 78 | **Trip of Korean Music**

<Trip of Korean Music> - the column in search of the origin of Korean music. The story of Korean music written amongst the landscapes of Korea in different seasons. This issue graces Busan National Gugak Center, which is reviving traditional Gugak in Busan, Yeongnam and is making new attempts to modernize it. Visit a part of the performance, and meet the singer who is reviving the traditional sounds of the Yeongnam region.



page 84 | **Sullocdawon(雪綠茶園)**

<Sullocdawon> is a column that spotlights the reemerging tea culture for the best tea-drinking experience. This issue introduces Samdayeon Jeju Tangerine, which blends post-fermented Samdayeon matured in cedar jars with fully ripened citrus sudachi and tangerines from Jeju. Read about the story of the tea of our Korean ancestors, who thought about tea, people, and the spirit over a cup of tea.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엽서를 적어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3년 6월 15일까지 (뮤지컬 관람권 응모 마감은 5월 31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미안피니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관람권
- 당첨자 발표** 2013년 7/8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 문의** 02-709-5525



설화수 미안피니셔 5명

설화수 미안피니셔는 아침과 저녁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여 피부의 생 윤기를 살려주는 제품입니다. 녹차에 발효한 홍삼 성분이 주는 피부의 힘을 키우는 효과가 하루 종일 생기는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문의 080-023-5454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관람권 6명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역사로 불리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의 공연 관람권 6장(인 2매)을 선물로 드립니다. 6월 중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관람 당일 디큐브아트센터 공연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92페이지 참조

3/4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윤조에센스(10명)

- 김안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 최중혜 강원 춘천시 후평3동
- 손영순 서울 성북구 종암동
- 김선영 대전 대덕구 비래동
- 백순선 전북 익산시 신동
- 진정숙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 이경희 대구 달서구 송현동
- 한윤경 강원 춘천시 지석로 29
- 서유민 대전 동구 대동
- 손영이 전북 순창군 순창읍

뮤지컬 <삼총사> 관람권(6명)

- 김유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 이동우 서울 강남구 도곡동
- 김경희 서울 은평구 역촌동
- 이순미 경기 용인 기흥구 서천동
- 손은주 서울 마포구 마포동
- 김정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 3/4월호 당첨자 선물은 5월 31일까지 보내 드립니다.